

문화예술체험과 함께하는
2018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삶의 질

일시 | 2018. 10. 27. (토) 12:30~19:30

장소 | 인하대학교 하이테크관 강당(B1층)

주최 |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후원 | 인하대학교, 한국심리학회



- 한국발달심리학회 : 발달심리사 기타활동 2시간
-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범죄심리사 학회참여 3시간
- 한국임상심리학회 : 정신보건임상심리사(수련생) 학술활동 1시간 20분
- 한국코칭심리학회 : 코칭심리사 교육수련 2시간
- 한국학교심리학회 : 학교심리사 사례연구활동 1회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www.kpacsi.or.kr

모시는글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2018년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8년 연차학술대회가 10월 27일(토)
인하대학교 하이테크관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연결성이 극대화된 지능혁명시대이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무형의 정보를 기반으로 무인차와 VR을 사용하는 정보화혁명
시대로서 놀라운 신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물질적 풍요의 기반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위안과 풍요까지 제공하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력과 빅데이터, 사회통합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로움과 평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창조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속고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 연차학술대회는 문화예술과 학문이 융합하여
조화를 이루어 내는 창조적인 장으로서 행복과 관련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의 초청 발표와
토론, 구두발표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연차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인하대학교와 후원해 주신 여러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결실과 풍요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8년 10월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박 영 신 배상

목 차

학술대회 일정	6
구두발표 일정	7
사회자 소개	8

제 1부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신입사원’ [연극공연: 해피아이]

연극공연	11
------------	----

제 2부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삶의 질 [초청 발표, 토론]

초청발표자 소개	17
----------------	----

초청글

- 한국인에게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 최봉영 (항공대학교 교수) 19
- 혼자서 더불어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 / 송관재 (연세대학교 교수) 29
- AI와 인간의 연결: AI 인간 행복의 장애물 vs. 조력자 /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39

토론자 소개	63
--------------	----

토론글

- 사람다운 삶은 어디에? / 한규석 (전남대학교 교수) 64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회적 관계의 가치와 방식 / 서경현 (삼육대학교 교수) 67
- AI 인간 행복의 장애물 VS. 조력자 - AI와 인간의 연결 / 김범준 (경기대학교 교수) .. 69

제 3부 Man on the String [classic Concert 현악4중주]

꿈과 희망,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을 향하여!	73
----------------------------------	----

구두 논문 발표 초록

구두발표 일정	77
구두발표 사회자 소개	78
• 자기효능감 수준별 대표적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 증상: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을 중심으로 / 배용순, 박영신, 이임순(인하대학교 교육학과)	79
•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생활만족도 및 심리특성의 관계 / 송옥란, 박영신, 이창주(인하대학교)	81
• 한국인, 베트남인과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심리특성 차이 / 레황바오째, 박영신(인하대학교)	83
• 부부갈등의 원인, 대처와 사회적 지원 / 남인순, 박영신(너나우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85
•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효도: 부모자녀관계와 어려움극복효능감의 영향 / 김정실, 박영신(인천논곡초등학교)	87
• 청소년의 자발적 학교이탈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김연정, 주경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	89
•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원인 / 유효숙, 박영신, 한미순(함현중학교)	91
•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양환옥, 박영신(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

사진 전시회 [윤영진 사진작가]

『Patagonia & Inca』 Photo Show	97
-------------------------------	----

학술대회 일정

12:30 ~ 13:00 등록

제 1부 13:00 ~ 15:10

사회 : 이 장 주 (이락디지털 문화연구소)

13:00~13:10	개회사 : 박영신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축사 :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13:10~14:30	연극공연 : 해피아이 제 목 :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신입사원'
14:30~15:10	구두 발표 제 1발표장 002호: 사회 문은식 (강원대) 제 2발표장 003호: 사회 이상란 (인하공업전문대)

제 2부 15:10 ~ 17:10

사회 : 주 경 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10~16:20	초청발표 최봉영 (항공대) - 한국인에게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송관재 (연세대) - 혼자서 더불어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 김경일 (아주대) - AI와 인간의 연결: AI, 인간 행복의 장애물 vs. 조력자
16:20~17:00	토론 좌장 :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한규석 (전남대), 서경현 (삼육대), 김범준 (경기대)
17:00~17:10	휴식시간

제 3부 17:10 ~ 18:30

사회 : 최 중 숙 (인하대학교)

17:10~18:00	Classic Concert : 현악4중주 공연 (Man on the String)
18:00~18:10	정태곤 소장학자상 시상식
18:10~18:20	정기총회 (차기회장 선출)
18:20~18:30	행운권 추첨 및 폐회사
18:30~20:30	저녁만찬

※ 행운권 : 구두발표장 001호, 002호에서 받을 수 있음.

구두발표 일정

제 1발표장 하이테크관 B1층 002호

사회 : 문 은 식 (강원대학교)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4:30 - 14:40	자기효능감 수준별 대표적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 증상: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을 중심으로	배용순 박영신 이임순
14:40 - 14:50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생활만족도 및 심리특성의 관계	송옥란 박영신 이창주
14:50 -15:00	한국인, 베트남인과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심리특성 차이	레항바오째 박영신
15:00 - 15:10	부부갈등의 원인, 대처와 사회적 지원	남인순 박영신

제 2발표장 하이테크관 B1층 003호

사회 : 이 상 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4:30~14:40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효도: 부모자녀관계와 어려움극복효능감의 영향	김정실 박영신
14:40~14:50	청소년의 자발적 학교이탈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 연구	김연정 주경필
14:50~15:00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원인	유효숙 박영신 한미순
15:00~15:10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양환옥 박영신

* 발표자의 소속은 지면관계상 생략되었음.

2018 연차학술대회 사회자 소개



이장주 대외이사

중앙대학교에서 문화사회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명지대와 중앙대에서 비전임교수를 잠시 하다가 현재 이라크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대외이사를 맡고 있다. 주요 활동영역으
로는 현대의 최신 기술과 콘텐츠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 기고, 강연을 주로 하고 있다. 저서로는 '청소년에게 게임을
허하라', '사회심리학', '여자와 남자는 왜 늘 평행선인 걸까?' 등이 있다.



주경필 학술위원장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문
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학술위원장이며,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편집위원
및 이사, 한국청소년학회 분과프로그램위원,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정책마스터플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기타 다양한 여성가족부, 교육부, 노동부 산하 기관의
정책연구 및 평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이라는
문화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생애발달적 학습경험과 소외
및 저항의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고, International Society
for Cultural-historical Activity Research 회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성인도래기 청년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중숙 총무이사

인하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교육심리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청년심리학, 동기이론,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와 가정환경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문화및사회
문제심리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41년간 초등교육에 재직하였
고 창의인성교육과 교육복지, 행복교육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였다. 사
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의 학업성취
과정에 대한 종단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고 국내 및 국제학
술대회에 참가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AASP(2011, 2016),
AAICP(2018), ICEM(2015), 한국교육심리학회(2016) 등에서 한국인의
토착심리인 한국인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회적 표상, 행복과 삶의 질,
존경, 스트레스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근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 1부

[연극공연: 해피아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신입사원'



연극공연 주제: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신입사원'



- 작: 서문하 外 신철연, 최미라
- 연출: 최미라
- 출연: 인경훈, 신용우, 최미라, 신철연, 이병철, 홍승아, 이지은, 김수빈, 황채은
- 제작: 극단 해피아이
- 러닝타임: 70분

■ 공연 내용

미래사물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서 딥플러스사는 인간의 기능을 완벽히 구현하는 안드로이드 로봇(AI 안파고)을 개발하여 시험에 들어간다. 이 로봇은 인간과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으며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모든 감정을 갖고 있고 일처리를 한다. 이 로봇의 첫 임무는 신입사원으로 위장하여 IT계열의 대기업 입사시험에 통과하고, 인간과 같은 일을 맡아 처리한다. 1년간 로봇임을 들키지 않고 회사에 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로봇이다.

[미산기업IT계열]대기업의 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은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합리성과 논리적 사고에 최적화된 인물들이다.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기업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감정들은 스스로 약화시키거나 숨기거나 제거하면서 살아간다. 이 속에 여러 신입사원 중 한명 인공로봇(AI)이 섞여 있다. 또 한명의 신입사원 안도로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AI이상의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인다. 같은 부서의 이차장은 동료들에게 인간성을 강조하며 늘 인간적으로 후배들을 독려하나 신입사원(안도로)보다 그저 그런 업무능력으로 상사로부터 질책의 대상이 되고 실직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점점 인간미를 잃어간다.

결국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여주는 안도로 신입사원에게 하나 둘 프로젝트를 빼앗기게 되고, 해고 통지서를 받은 이차장은 신입사원(안도로)가 안드로이드 인공로봇 (AI)이라고 착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 연출의도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등등을 거치면서 우리 인간들은 '인간성'소외에 대해 걱정을 하였지만, 순차적으로 시대흐름에 적응하면서 더 많은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의 사회는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기에 훨씬 전문적이며 복잡한 사회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4차 혁명의 적응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닥쳐올 문제로 부각된 것이 일자리 감소이다.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감정들은 버려지거나 억제될지도 모른다. 즉, 인간미가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다.

이러한 4차 혁명의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준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어느 곳에서 상처를 받고, 어느 곳에서 위안을 받는지를 고찰하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성'의 숭고한 가치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극단 '해피아이' 소개

2004년 "행복한 나[Happy I]" '내가 행복해야 우리 모두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극단 해피아이를 창단하여 힘든 세상에 지지치 않고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 세상을 살맛나게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웃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 그분들의 이야기로 재미있는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CAST



아버지(신용우)

- ◆ 前 인천은지초교 교장,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 인천서부교육청 장학사 역임
- ◆ 前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인천지부 회장 역임
- ◆ 1995 대한민국연극제 연기상 수상 ◆ 現 극단 흐름새 상임연출
- ◆ 연출: 은고리, 칠산리, 리투아니아, 국물있사옵니다,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해피투게더, 어제의 용사들
- ◆ 출연: 등신과 머저리, 바람 앞에 등을돌고, 버리고간노래, 이별의 인천항구, 붉은노을 속에 허수아비로 남아, 어린왕자, 한여름밤의 꿈, 웃음의 고등학교 리어왕,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가지면 달이뜨고, 유어예, 늙은 배우의 노래 등



이차장(인경훈)

- ◆ 現 인천 가림초교 교감,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
- ◆ 극단 흐름새 단원, 인천교사극회 고문
- ◆ 올해의 스승상(2012) 수상
- ◆ '팽', '국물 있사옵니다.', '칠산리', '버리고 간 노래', '30일간의 아우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채흠시리즈 리멤버 2015', '어제의 용사들' 출연 |
- ◆ '굿닥터', '도비깨비' 연출
- ◆ 전국 어린이연극제 금상(1위) 및 다수의 아동희곡 집필



어머니(최미라)

- ◆ 극단 해피아이 대표
- ◆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졸업, 중앙대 문화예술경영학 석사졸업
- ◆ 제13회 전국노동문화제 신인연기상, 1991인천연극제 최우수연기상 수상
- ◆ 영어뮤지컬 '춘향전', '흥부네 박터졌네', '헤어스프레이', '애니', '맘마미아' 외 다수 제작
- ◆ '한씨연대기', '전쟁땀 음악쫓', '해가지면달이뜨고', '울밑에선봉선화', '고금소총', '늙은부부이야기', '느낌 극락같은' 외 다수 작품 출연
- ◆ 인천관내 초중고 영어뮤지컬 & 문화예술지도, 인천문화예술인&문화예술자문위원



신과장(이병철)

- ◆ 2017 대한민국연극제 최우수 연기상 수상
- ◆ '꽃마차는 달려간다', '무의도기행', '아버!', '꽃다방이야기', '좀례' 외 다수출연
- ◆ 現 KBS, MBC, SBS 등 드라마 및 영화 출연



안도로(신철연)

- ◆ 前 인천교사 극회 회장
- ◆ 現 인천미산초 교사, 극단 해피아이 단원
- ◆ '해피투게더', '해가지면 달이 뜨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채흠단막시리즈', '나의 조국 미운 대한민국', '아빠하고', '늙은 부부 이야기' 외 다수 출연



홍대리(홍승아)

- ◆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 ◆ 뮤지컬 락오브에이지, 색즉시공, 그리스, 헤어화, 드라쿨라, 카르멘, 라롱드 등 다수 출연
- ◆ 연극 '보고 또 보고', '느낌 극락같은' 외 다수 출연



최복실(이지은)

- ◆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 ◆ 극단 해피아이 단원
- ◆ 인천관내 초,중,고 문화 예술 강사
- ◆ '헤어스프레이', '깨비 깨비 도깨비' 등 출연
- ◆ ' 보고 또 보고', '느낌 극락 같은', '늙은 부부 이야기' 등 조연출



김인턴(김수빈)

- ◆ 서울공연예고 연극영화과 졸업
- ◆ 극단 해피아이 단원
- ◆ '웃어라 미래야', '장터에 난리 났네', '헤어스프레이', '사랑 소묘', '느낌 극락 같은' 등 다수 출연



달(황채은)

- ◆ 극단 해피아이 단원
- ◆ '헤어스프레이', '느낌 극락 같은' 출연
- ◆ '늙은 부부 이야기' 음향 스텝



특별출연
(이기석)

- ◆ 서울예전 연극과 졸업
- ◆ 現 한국연극협회 양천 지부장
- ◆ 극단 은행목 대표, 원미동 사람들 대표
- ◆ 前 인천시립극단 단원
- ◆ '뛰는 놈 위의 나는 놈', '보고 또 보고', '느낌 극락 같은', '동치미', '안개섬' 외 다수 작품 제작, 연출 및 출연

■ STAFF

- 무대: 진정하 (놀이와 축제 대표)
- 음악: 지종호 (좋은소리 대표)
- 효과: 윤준연 (서면초교 교사)
- 조명: 박성준(서면초교 교사/ 現 교사극회 회장)
- 진행: 박순흥 (축현초교교사) / 손준석 (극단해피아이 단원)

제 2부

[초청발표, 토론]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삶의 질



2018
연차학술대회
초청발표자 소개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삶의 질

한국사람에게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항공대학을 퇴직한 지 여섯 달이 되었음. 수십 년에 걸쳐 한국말과 한국사람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구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음. 한국사람이 어떤 것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의 바탕이 되는 한국사람 나름의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을 밝혀서 체계화하는 일을 보람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한국의 인문학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생각함. 이번의 발표는 이러한 연구의 한 부분에 해당함. 저서와 활동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보다 잘 알 수 있음.



최봉영
항공대학교 교수

혼자와 더불어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U.C.Santa Barbara에서 포스트닥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있다. 연세대를 비롯하여 건국대(전임교수), 홍익대(겸임교수) 등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고, 삼성이나 현대 등 기업에서 프로젝트와 강의를 해오고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심리학회 총무이사를 하였으며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생활속의 심리학, 대인관계의 심리, 성차이의 심리 등이 있다.



송관재
연세대학교 교수

AI. 인간 행복의 장애물 vs. 조력자 AI와 인간의 연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Austin)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아주대학교 창의력 연구센터장과 삼성 HR 자문교수, 한국수사심리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대표 저역서로는 ‘혁신의 도구,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지혜의 심리학’, ‘우리가 어쩌면 거꾸로 해왔던 것들’이 있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한국인에게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최 봉 영
항공대학교 교수

개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바탕을 갖고 있는지 묻고 따지고 풀어서
차려보고자 한다. 행복하게 살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람에게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최봉영
연신서당 지킴이

연신서당에서 바라본 앞산 풍경

1

🌿 한국사람 : 존재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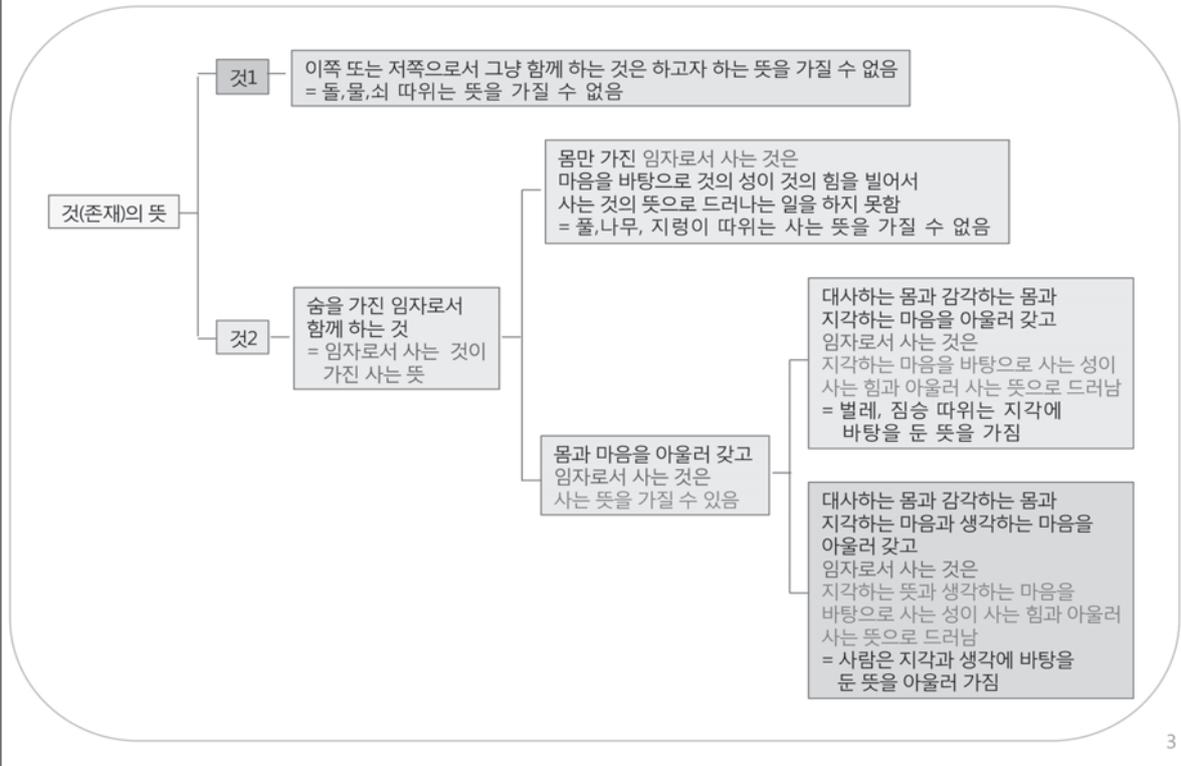
存在

것

존재는 이것, 저것, 그것 그리고 갖가지 온갖 것을 일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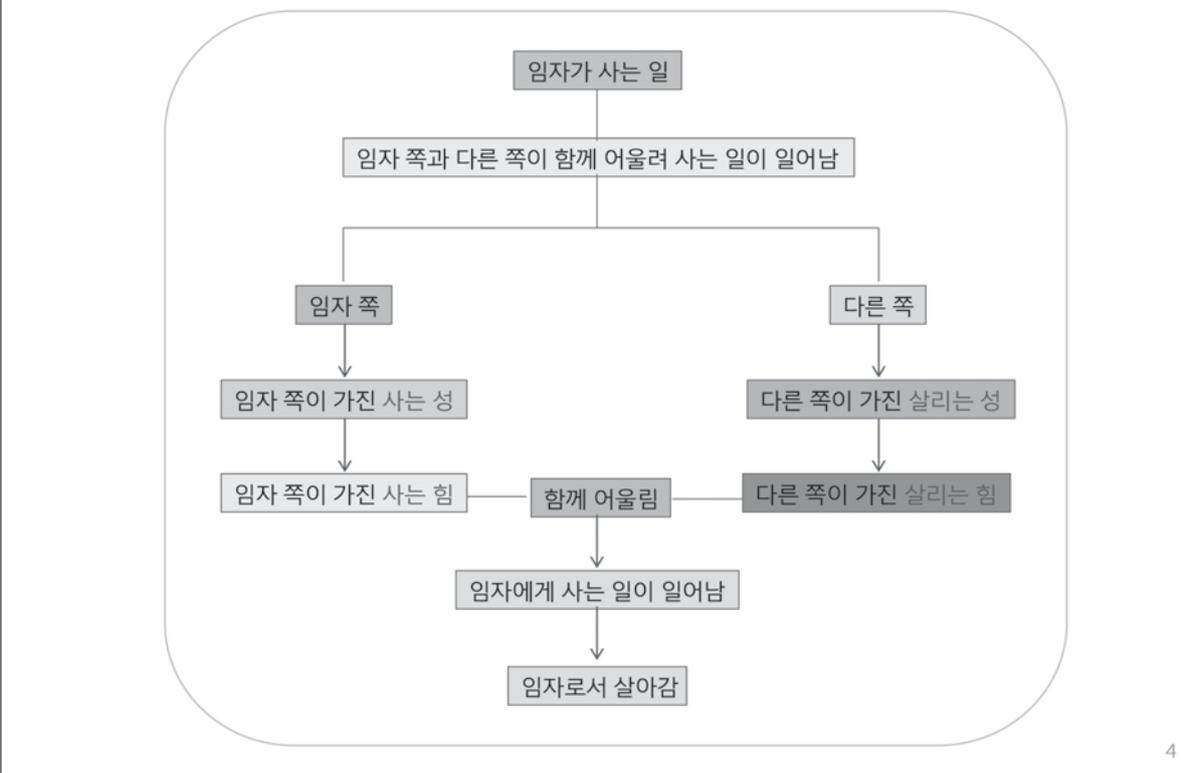
2

한국사람 : 존재하는 것의 갈래와 생각하는 사람



3

한국사람 : 생각하는 사람이 임자로서 사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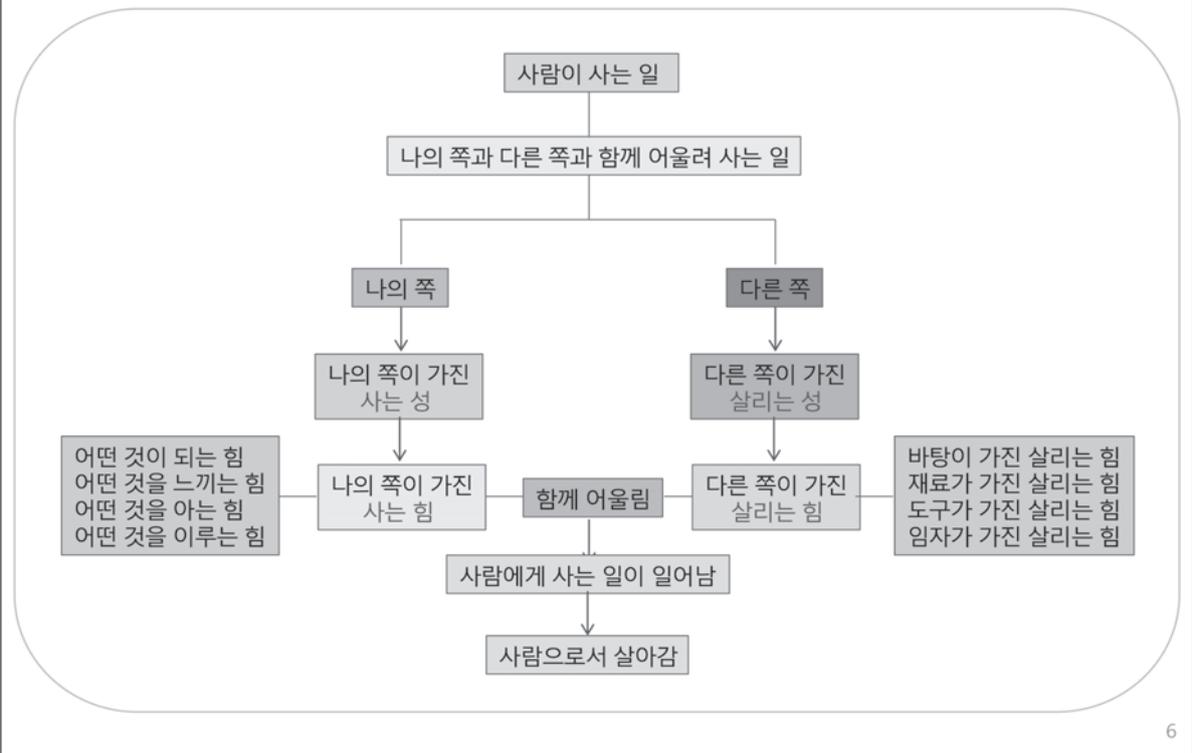
4

🐛 한국사람 : 인간과 사람

사람은 온갖 것을 살려서 살림을 살아가는 임자

5

🐛 한국사람 : 생각하는 사람이 임자로서 살림을 사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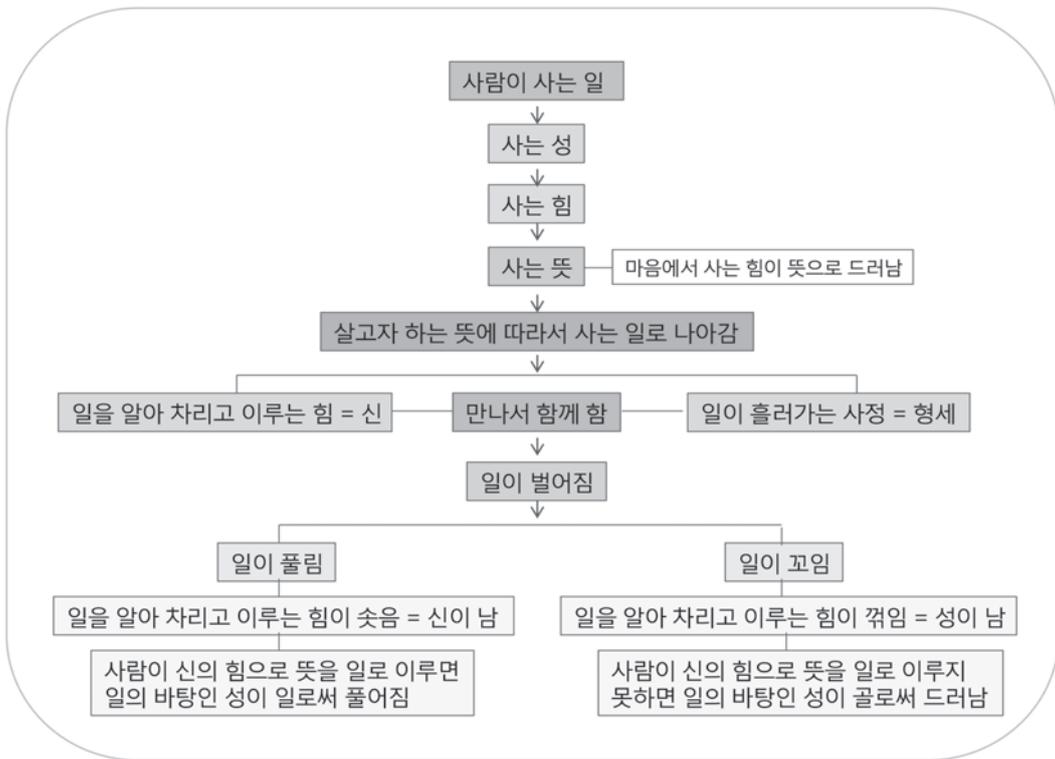


🐛 한국사람 : 생각하는 사람이 임자로서 살림을 사는 일의 짜임새



7

🐛 한국사람 : 생각하는 사람이 임자로서 사는 일에서 성, 힘, 뜻, 신



8

🐛 한국사람 : 행(幸)과 살리는 힘

幸

살리는 힘

행은 사람이 살리는 힘을 가진 쪽을 만나서 사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9

🐛 한국사람 : 복(福)과 살리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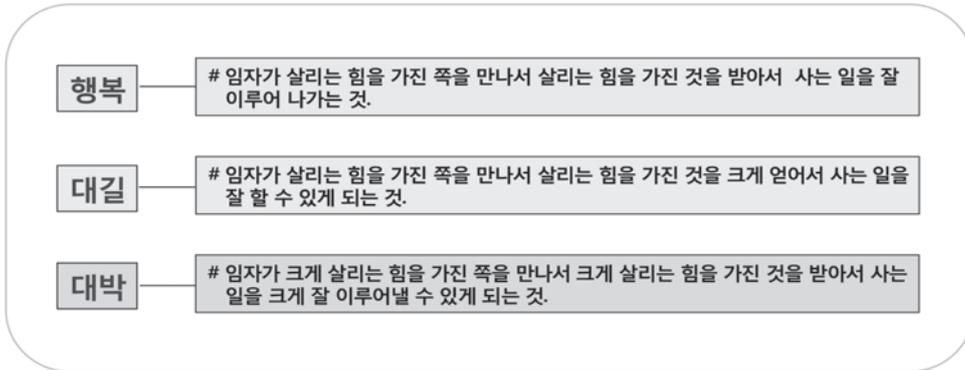
福

살리는 힘

복은 사람이 살리는 힘을 가진 것을 받아서 사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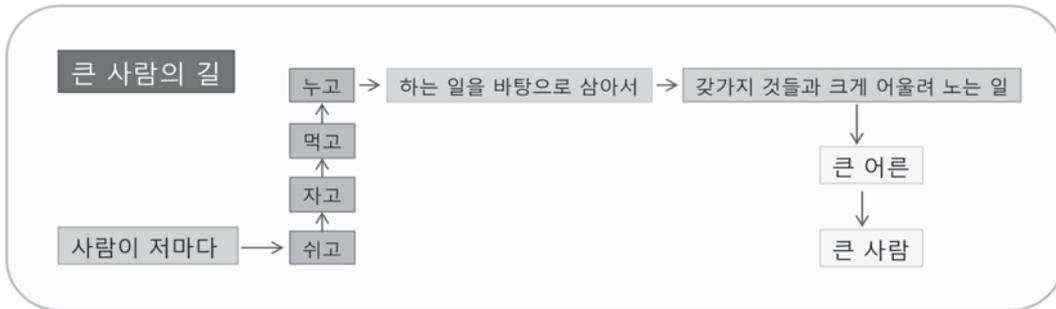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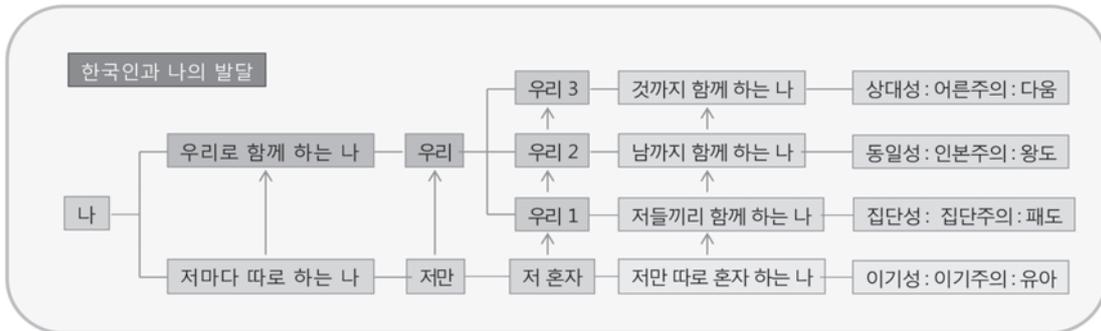
한국사람 : 행복과 대길과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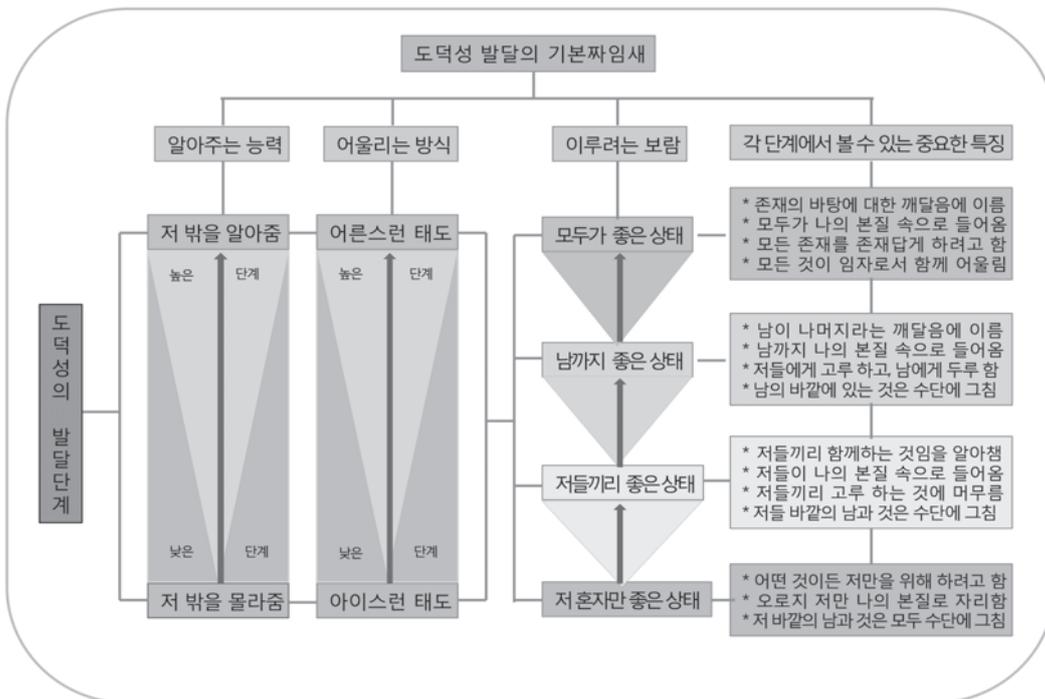
한국사람 : 생각하는 사람이 임자로서 살아가는 일의 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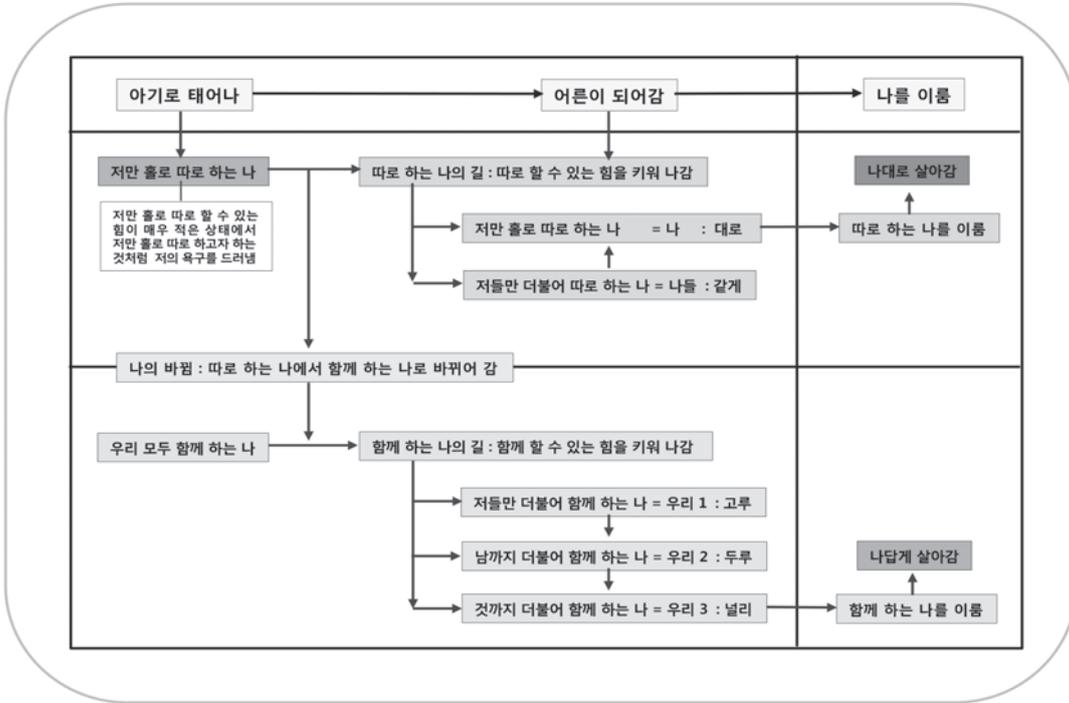
한국사람 : <나>의 발달과 큰 사람의 길



한국사람 : 도덕성과 발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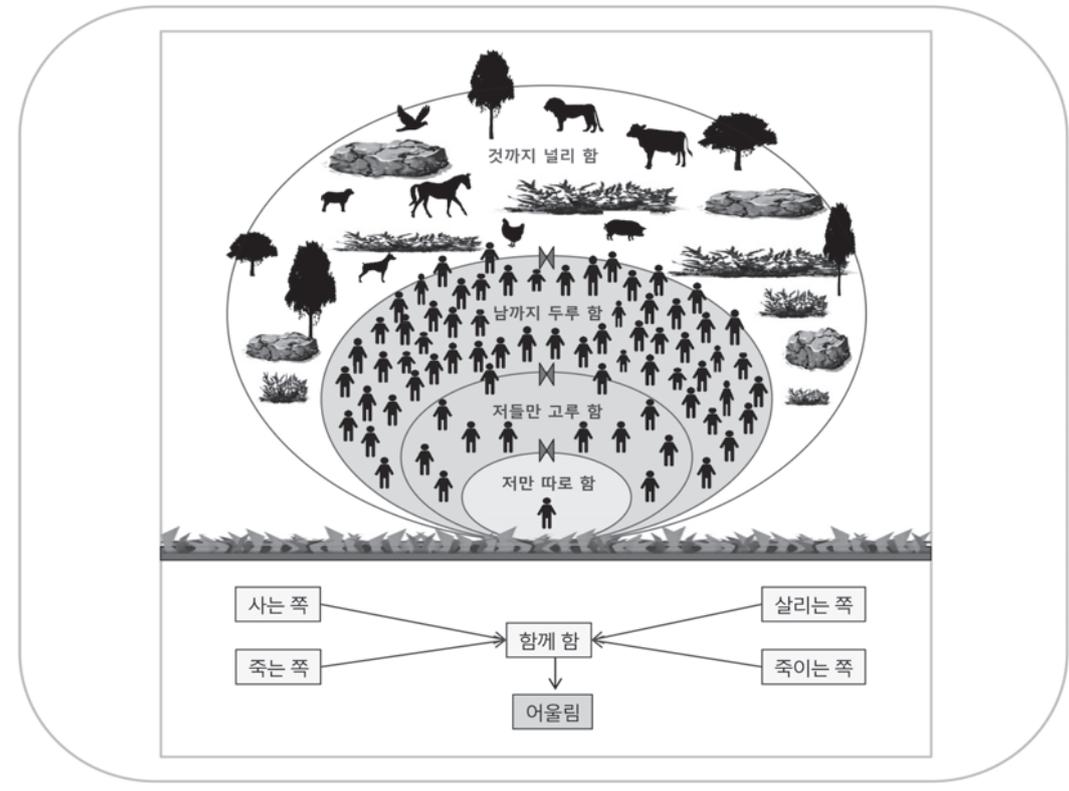


한국사람 : 따로 함과 함께 함을 바탕으로 나를 이루는 길



15

한국사람 : 사람이 함께 하는 일과 어울림



16

혼자와 더불어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

송 관 재
연세대학교 교수

개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개인은 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유대감은 인간의 행복에 주요요소로 가정해 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솔로의 시대에 인간은 혼자서 행복할 수는 없을까? 개인은 혼자 있으면 고독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사회 환경은 달라졌는데 기존의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을 달리 해석해 볼 수는 없을까? 혼자와 더불어 어느 것이 더 행복한 것인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혼자와 더불어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

발표요지

세상은 변하고 있다

: 1차 산업혁명 - 2차 산업혁명 - 3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

인간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다.

: 사고와 행동의 변화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삶의 질이라는 주제 속에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함

행복이란?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보람 있다고 느끼니까?

=> 즐거우면서 의미 있는 삶

즐거움 : 환희, 흥분, 재미

의미 있는 삶 : 목적의식(vs 무의미함, 허무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사회적 본성 : 인간의 행복은 부모, 자식, 아내, 그리고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동료 시민들과의 결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식을 통해서 구현된다.

행복의 필수조건 : 친밀한 대인관계

개인의 존재 가치 :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필요. 역할이 주어져야 함.

대인관계의 실패

: 외로움, 고독, 소외감

고독의 생리적 결과

배측 전두대 피질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신체적 고통을 당할 때 반응하는 대뇌부위
고립의 느낌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나타냄
- 사회적 배척의 경우, 추방이나 독방

일시적인 기분의 전환으로 회복하기 어려움
- 면역기능 약화, 운동의 효과미비, 알츠하이머병의 악화

외로운 자

결정 인자

- 사회적 단절에 대한 취약성 수준
- 고립된 느낌과 관련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 다른 사람에 대한 심적 표상과 기대

불안, 두려움 => 소외감 => 공격성, 불신

사회인지의 왜곡

사회적 유대감이 자기조절 및 공동조절에 중요

외로움의 대가 : 자기조절력의 상실

외로움은 외부의 사회적 환경에서 자기조절 능력의 상실을 가져옴

실행조절능력 : 음주, 약물복용, 자기파괴적 행동과 관련

사회적 단절감 - 비만과 관련

고통을 달래기 위해 지방을 투입하려는 것

캔디 실험 (역우발성 실험)

간섭효과, 과제 수행에 어려움

인간의 진화에서 사회적으로 협력하는 능력이 중요.

그러나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경우 이기적인 유전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유대의 강조

동물들의 삶 : 개미들의 행동

이상한 부족 : 쿵족 (수렵채취 부족) 원시적인 인류사회

사회친화적인 인간이 환경에 더 안정적으로 적응한다. 인간사회 내부에서는 그런 규칙을

따르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 사회적 소외감은 더 두렵고 파멸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Dichotic listening(이음 이원 청각실험)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집단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집단

중간에 있는 집단

양쪽귀로 서로 다른 소리를 들려 주면서 한쪽 귀에 특별한 소리(우 혹은 하)가 들리면 반응하게 하는 것

어느 한쪽 귀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 오른쪽 귀의 소리를 정확하게 인식

오른쪽 귀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 세 집단 모두 정확하게 인식

왼쪽 귀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 외로움을 느끼는 집단은 정확도가 떨어졌다.(주의력결핍현상때문)

바우마이스터

불행조절조건 : 미래의 외로움
미래의 친밀한 관계
불행조절

내외향성검사, 성격검사실시후 결과 통지

GMAT 성적 비교 : 외로움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자기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고력의 손상)

맛이 불편한 음료를 마시게 하게 하고 마신 양만큼 돈지급 : 외로움집단이 가장 적게 마셨다(자제력의 손상)

외로움과 건강

건강은 개인 습관이나 행동상의 차이뿐만은 아니다.

외로움이 심한 학생

사회적 협력 수준, 수줍음, 사교성 등이 낮으며, 분노와 불안이 높고,
자긍심이 낮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낙천성이 낮고, 긍정적 기분이 낮다.

사회적 고립은 4대 요건(고혈압, 비만, 운동부족, 흡연)과 동등한 효과

친구가 없는 사람이 사망률이 높다.

외로움의 악영향

생활습관 : 운동, 음주

실행통제능력의 손상, 자긍심의 손상

스트레스

자기보호적 행동으로 인한 갈등, 중간직급에 머물

스트레스 인지와 대응

얼굴사전에 대한 반응, 소극적 대응

면역체계의 영향

알로스타시스의 부하(에피네프린의 수치, 염증, 코르티솔의 수치)

휴식과 회복

수면의 질, 여가시간

환경(4차 산업혁명)의 변화

세계경제포럼 : 디지털 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

IT 용어 사전 :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새로운 기술이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경계를 허물고 모든 규범, 경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자동화(automation), 연결화(connectivity)

인공지능, 로봇, 물건<플랫폼, 실제공간<가상공간

네트워크의 연계 및 확장

- 데이터 인프라 : 무선 인터넷, 스마트 폰, 사물 인터넷
- 융합 : 인간과 기계의 융합, 현실과 가상의 융합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

외로움을 느끼는 기간과 양?

=> 고독을 찾고 싶어지는 환경이다.

슬로의 가치

창의적인 활동

: 내면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개인화 과정

: 스스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개성을 찾는 것

적극적 상상

: 내면에서 비롯되는 태도변화를 통한 치유 (융의 통합)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을 것인가?
고독에서 찾을 것인가?

일상적인 메일과 문자, 전화, SNS, 도시소음과 자극들 등 복잡한 현대사회
: 고독은 평화이다.

솔로예찬

: 혼자서 살아가기, 여행하기 등

기도와 명상

: 마음을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보울비 : 타인과의 친밀한 애착을 중심으로 삶이 전개된다.

=> NO!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도 삶에 영향을 미침

자연적인 재해의 불안요소가 작아지면서 인간관계를 추구
세상이 다양해지면서 인간관계로 인한 걱정과 불안이 증가됨
내면적 탐색(상상)으로 충족감을 얻으려고 함

행복의 기술

영국 BBC다큐멘터리

- 친구가 있어 행복하다.
-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 사랑
- 즐겁고도 행복한 성생활

몰입의 즐거움(by 긍정심리학)

: 자신이 허를 쏘 내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떤 일에 빠져드는 바로 그 순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삶의 질

삶 자체가 플로우 상황이다.

: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잠시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는 것

사회적 규범의 다양화

: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중요, BUT! 관심사를 공유할 사람이 더 중요

풍요로운 환경

: 관계의 욕구보다는 자아실현, 자존감의 욕구를 추구

사회비교 과정의 변화

: 획일적인 기준의 소멸, 개성의 시대, 자신만의 기준 설정

사회적 유대감

: 시스템 연대감, 가상비서의 등장

다양성, 혁명의 시대

: 태도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

스마트 신인류, 그들의 삶

Phono Sapiens(스마트 신인류)

: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정보를 빠르게 얻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겨 한다.

적응성 : 공감과 포용능력

민첩성 : 빠른 반응성

창의성 : 독창적인 문제해결능력



MEMO

AI와 인간의 연결: AI 인간 행복의 장애물 vs. 조력자

김 경 일
아주대학교 교수

개요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분석과 판단을 한다. 그리고 행복은 그 오감의 영역을 통합해 경험해야 하는 긍정적 상태다.

최근의 AI는 우리의 오감을 연결시켜 육감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 두 중요한 흐름을 통합해 인간 행복의 장애물이 될 수도 혹은 조력자가 될 수도 있는 AI의 미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AI 인간 행복의 장애물 vs. 조력자 AI와 인간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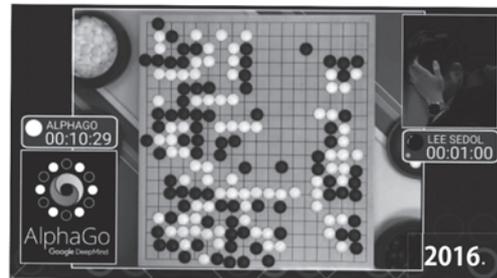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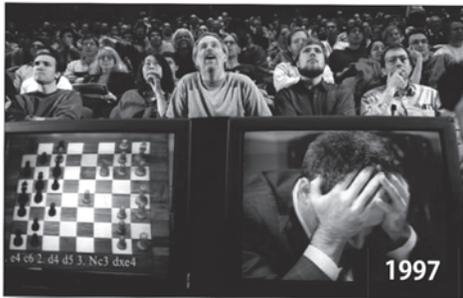


김경일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E-mail: kyungilkim@ajou.ac.kr
U R L : <http://ajou.ac.kr/~tetross>

컴퓨터의 생각 vs. 인간의 생각



호모 사피엔스의 위기



창작의 영역까지 AI에게 내어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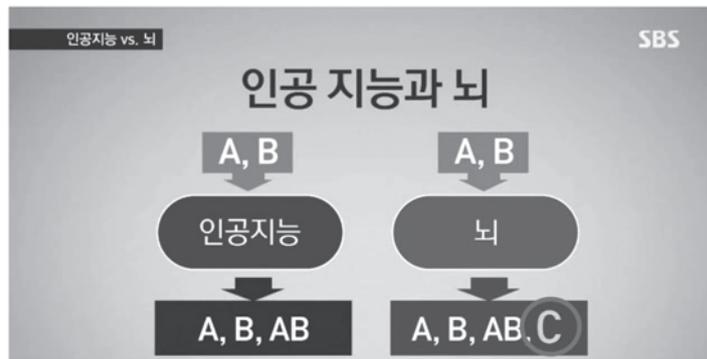
실수? 우리가 놓친 생각의 힘



틀을 깨는 인간



틀을 깨는 인간 vs. 틀 안에서 움직이는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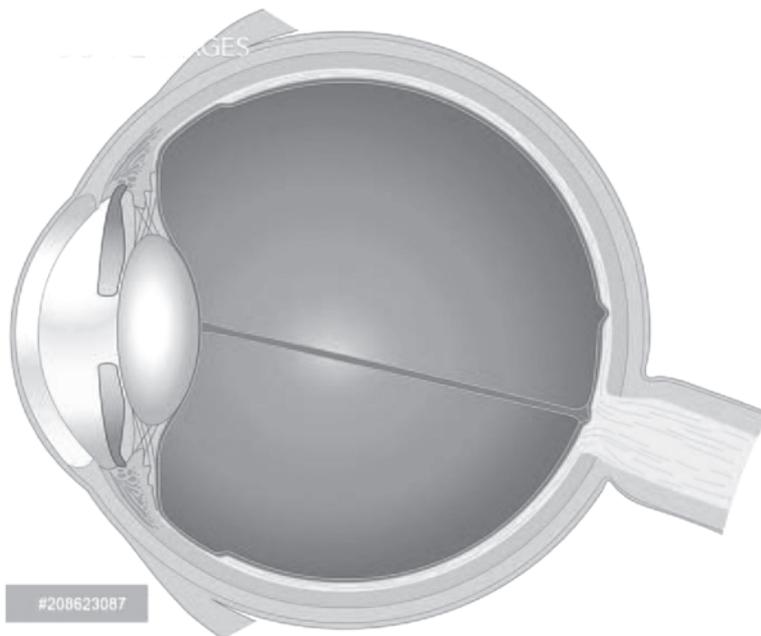
Data 안에서만 답을 도출 vs 비판적 수용으로 새로운 답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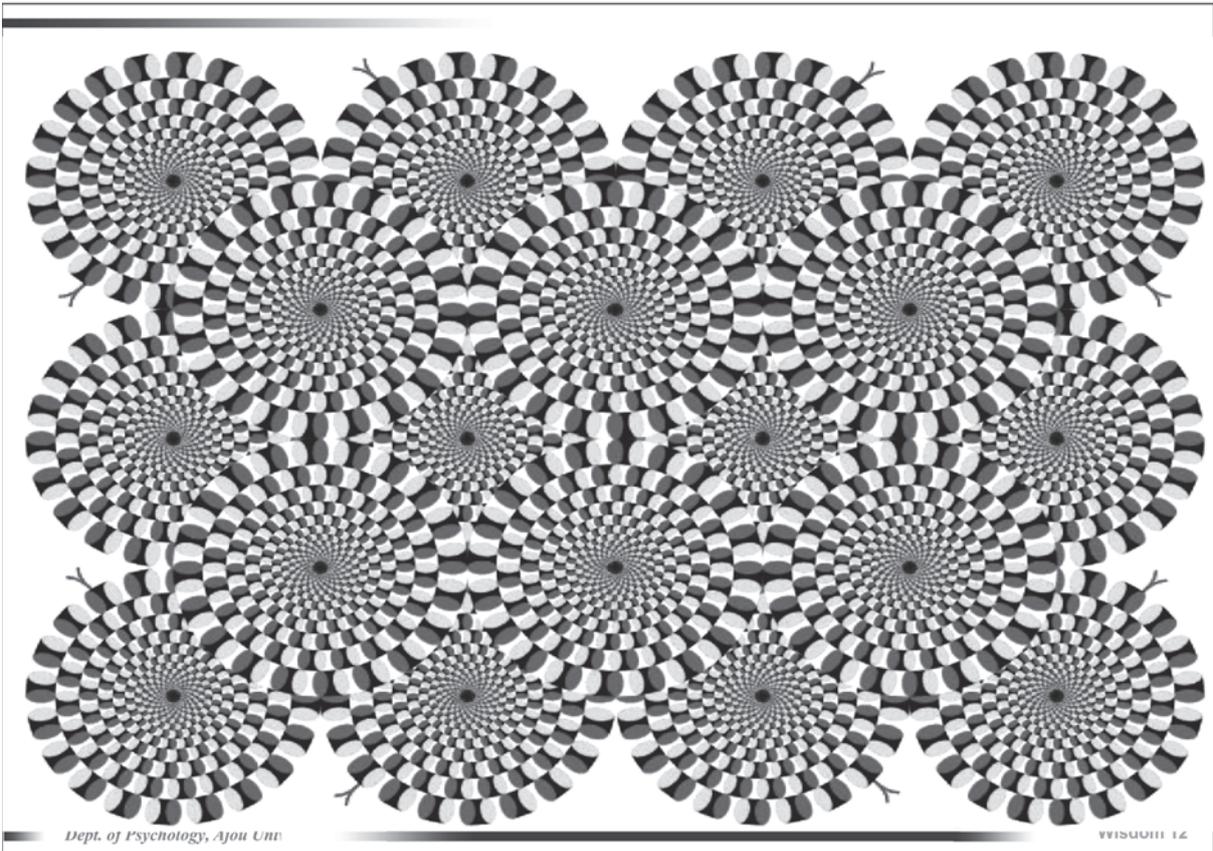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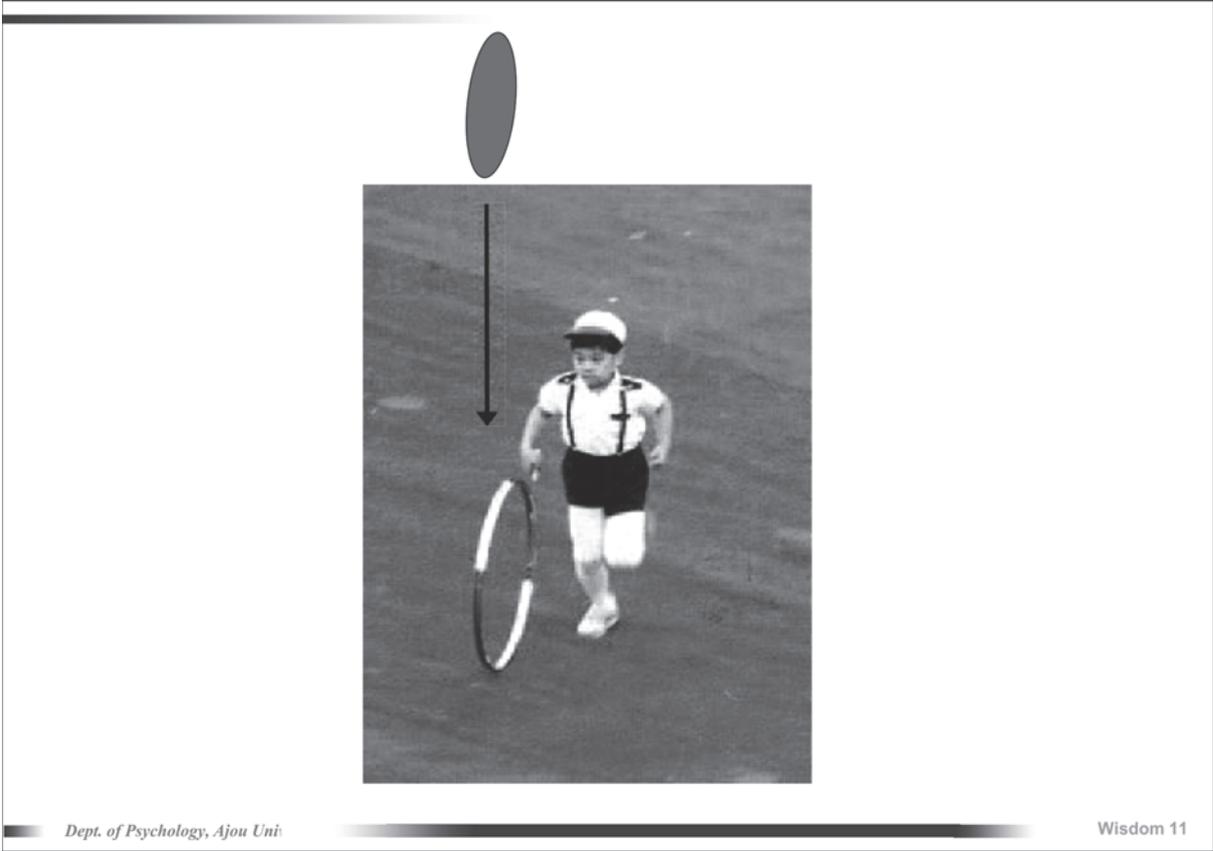
Average Self vs. Unique Self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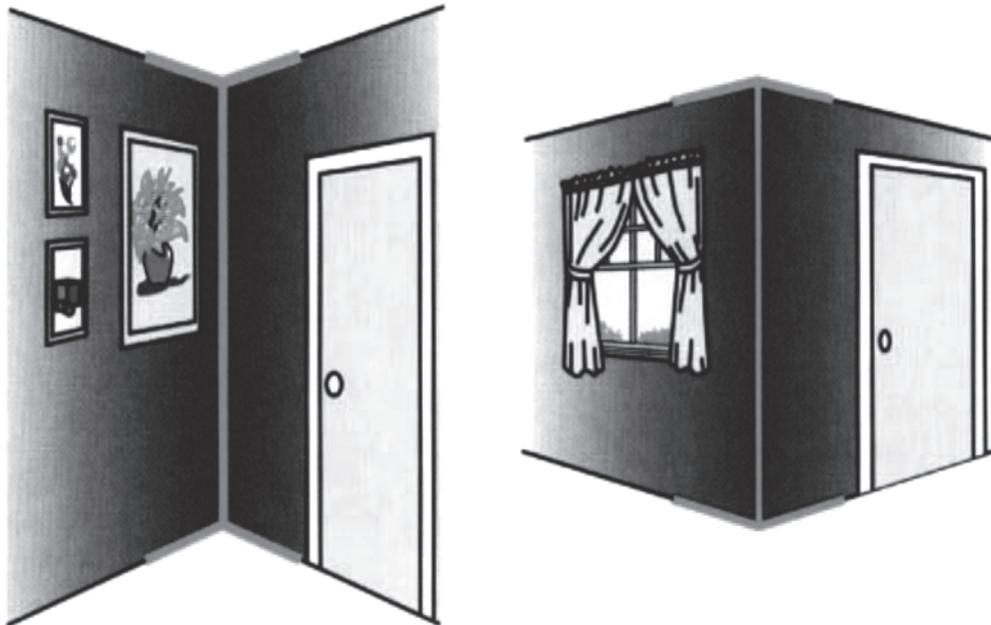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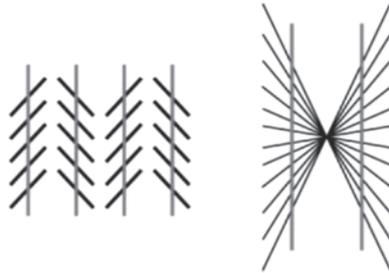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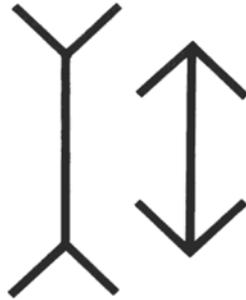
- ▷ 시각
- ▷ 청각
- ▷ 촉각각
- ▷ 후각
- ▷ 미각
- ▷ 그리고 나머지는? Sixth S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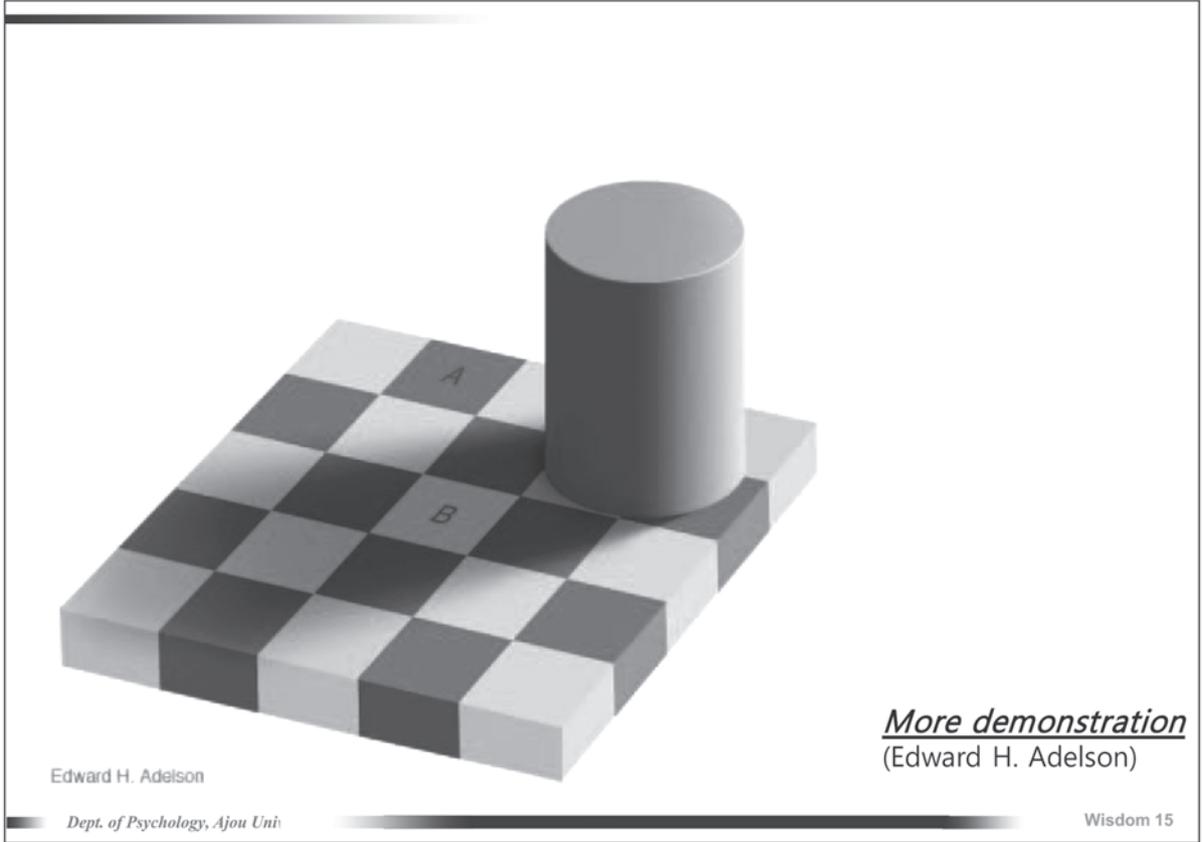
눈의 단면





착시





감각은 생각을 좌우한다.

“손 씻었다”
“따뜻한 사람”
“더러운 손”
“가까운 사람”

사회적 관계와 체화된 인지

▷ 따뜻한 손 - 따뜻한 마음 vs. 차가운 손 - 차가운 마음



체화된 촉각 경험

▷ 접촉을 통한 소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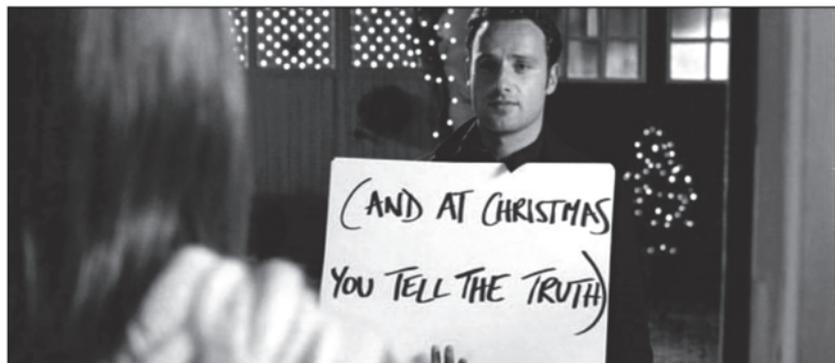
날이 추우면... 2016년 12월 30일 영하 9도

로맨스 코미디 추천 전국 현재 날씨 정보 생활 속의 심리학 < >

The screenshot shows the Naver homepage with a search bar at the top.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several sections: a weather forecast for December 30th (영하 9도), a news section with various headlines, a section for '12월 30일 영하 9도' (December 30th, below zero 9 degrees), and a section for '로맨스 코미디 추천' (Romance Comedy Recommendation). The page is filled with various articles, images, and navigation menus.



**love
actually**



▷ 무게 있는 사람…?



🕒 딱딱한 쿠션 vs 폭신한 쿠션



권력과 체화된 인지



권력과 체화된 인지



자세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High Power" body language (top 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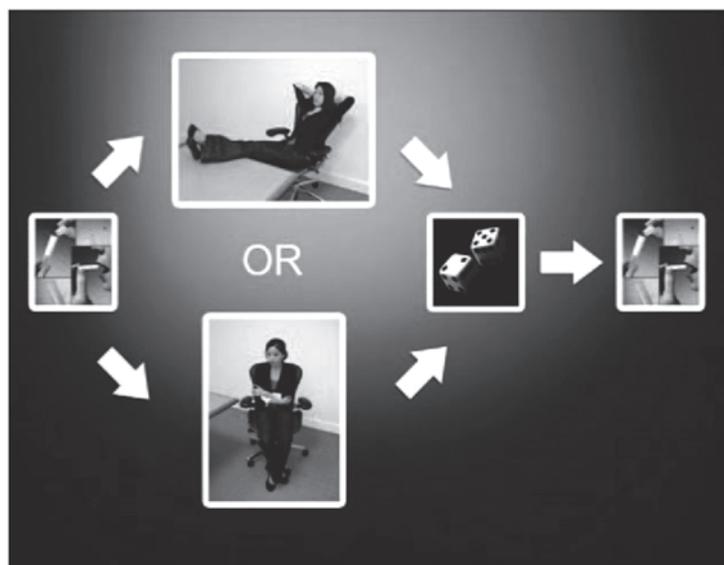
vs.

"Low Power" body language (bottom 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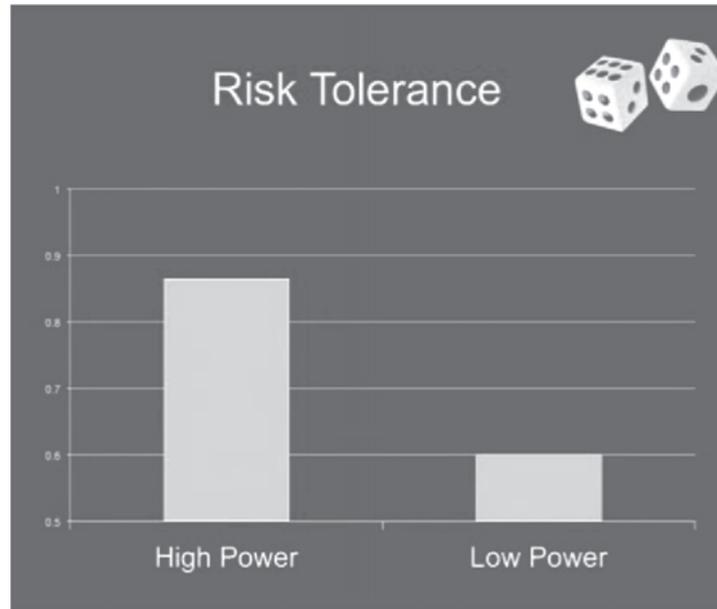
(Images courtesy of Amy Cuddy, Harvard University)



자세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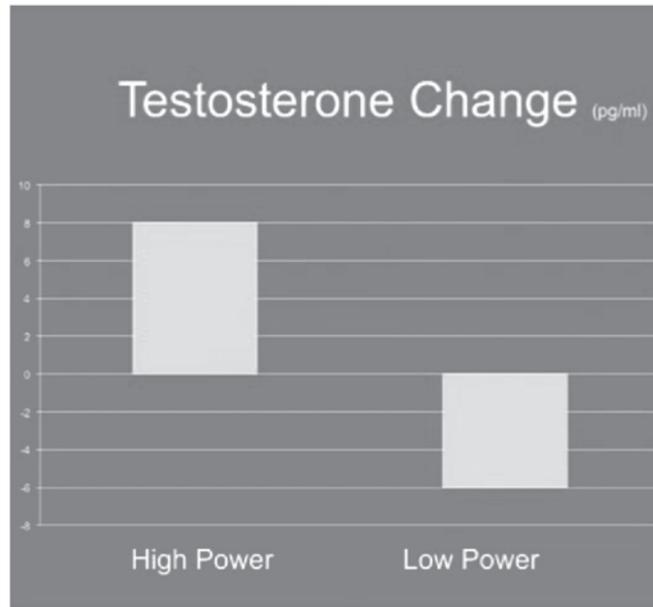
자세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자세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자세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Lee. S. W., Schwarz. N. (2010). Washing Away Postdecisional Dissonance. *Science*, 328, 709.

Dept. of Psychology, Ajou Uni

Wisdom 33

Dirty VS Clean Money



죄수 딜레마 게임

Yang, Qing, Wu, Xiaochang, Zhou, Xinyue, Mead, Nicole L., Vohs, Kathleen D. & Baumeister, Roy F. (2013). Diverging effects of clean versus dirty money on attitudes, values, and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3), 473-489.

Dept. of Psychology, Ajou Uni

Wisdom 34

왜 다단계 프로그램을 버스에서 설명하는가?



Dept. of Psychology, Ajou Univ

Wisdom 35

비슷함과 다름에 대한 착각. 서로 더 비슷한 쌍은?

PC – 노트북

VS.

PC – 고양이

Dept. of Psychology, Ajou Univ

Wisdom 36

2분간 차이점을 최대한 써보시오.

PC – 노트북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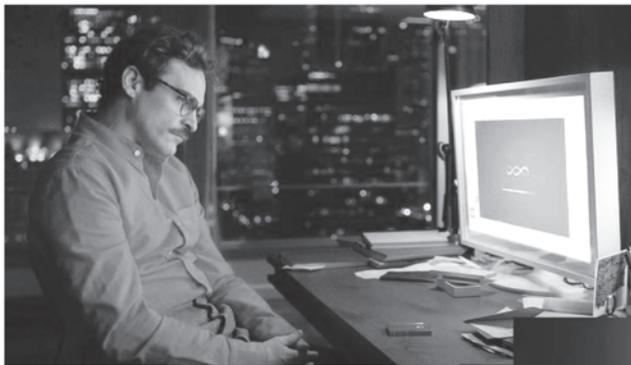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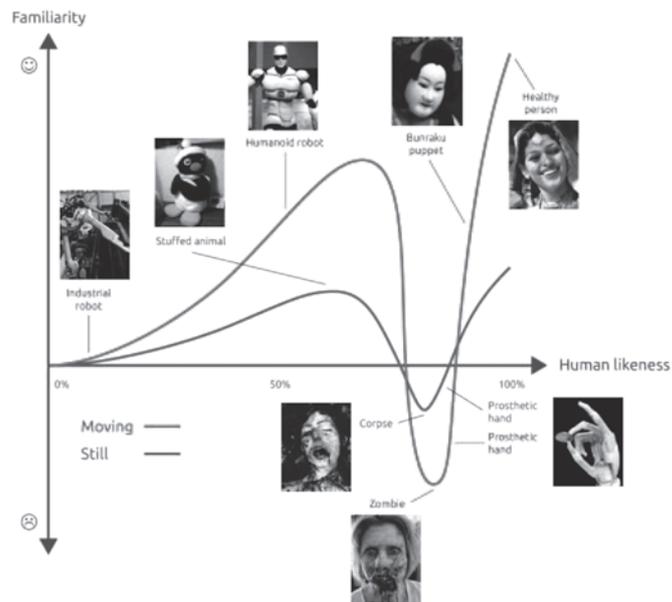
PC – 고양이

누가 가장 많은 고객을 맞이했을까?



Nakasaki, Henn-Na Hotel, since 2015

섬뜩한 골짜기 (Uncanny Valley)



Samantha





Wanting vs Liking



감사합니다!





1. 좌장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교육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부장,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파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자문교수(상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교육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교육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최적의 한국교육정책을 연구·개발·적용하는 교육학자이다. 저서로는 교육정책론, 교육행정학 탐구, 한국교육정책 현안과 해법, 비교교육학 등이 있다. 최근 지방교육의 활성화와 한국교육의 국제 비교를 위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

2. 토론자 소개



한규석
전남대학교 교수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녹아있는 세계관에 바탕하여, 한국 사회와 심리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연구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열적 교류, 도덕성 발달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회장, (사)한국심리학회 부회장,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사회심리학의 이해’(2017, 4개정판) 등이 있다.



서경현
삼육대학교 교수

산토토마스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와 연구산학처장(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심리학회 자격제도위원장, 재무이사, 대외이사 및 정보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16년부터 2년간 한국건강심리학회장으로 봉사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RB)과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아시아건강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중독상담학회 부회장,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부회장, 한국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장, 대한스트레스학회 이사 및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감사 직을 맡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사회문제를 주제로 한 심리학 연구를 수행하여 지금까지 180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김범준
경기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미시간대학교(앤아버) 심리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사고유형의 문화차이에 대해 연구하였고, 현재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심리학회 윤리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부터 2년간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RB)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감사, 한국 법 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 그리고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문화, 사회 문제, 법, 문화 그리고 행복 등을 주제로 한 심리학 연구를 수행하여 다수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2018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삶의 질”
 2018. 10.27 인하대학교

사람다운 삶은 어디에? <토론>

한 규 석
 전남대학교 교수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삶의 변화



인공지능, 생명공학, 로봇공학, 통신공학 등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융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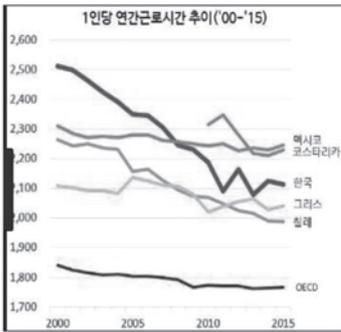
일의 변화

일자리의 감소: 다보스
 예측 500만개 감소
 2016 나가사키 헨나호
 텔 개장 인건비 1/5

직종별 미래 일자리 증감 (단위=천개)



노동시간의 감소:
 2030 주당 15시간 (영국)



인간관계의 변화

한국의 1인 가구 증가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1인 가구 증가 추이



복시야 남성, VR게임 중 사망 | TecTok



\$7,000 Real Doll

사람다운 삶이란?

즐겁고 의미있기만 하면 되나?

쾌락 생각실험1: **쾌락 장치에 연결된 삶을 살 것인가?** R. Nozick 1974

의미 생각실험 2: 신이 시지프스에게 가치의 환각 주사 “돌 올리는 가장 가치스러운 일이다”는 생각 Richard Taylor

의미있는 활동이란 자기를 초월한 가치의 구현 → 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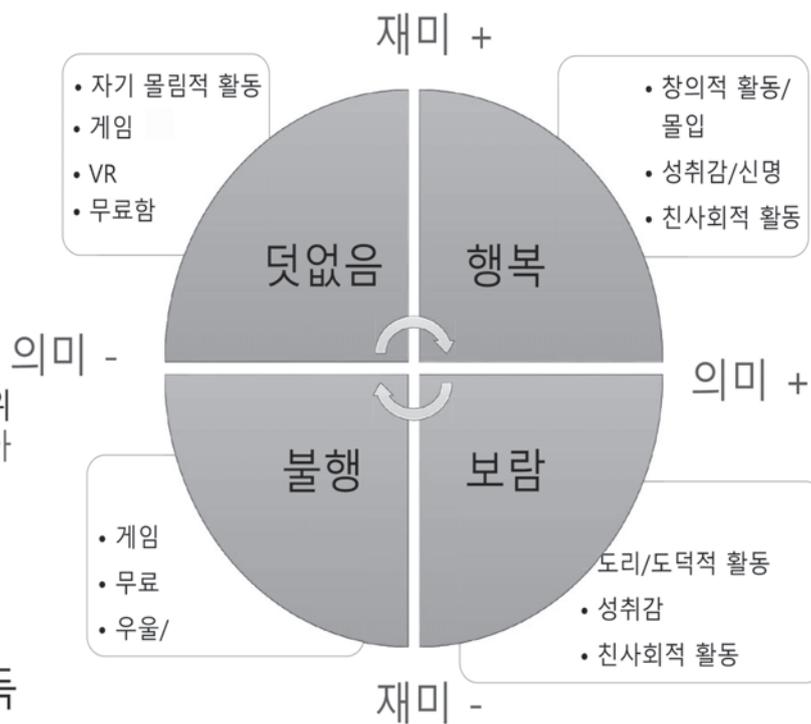
Robert Nozick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삶의 유형

나는 어느 방안에 속하고 있는가?

자기를 살리는 주위 것들의 가치를 알아 주고 살리는 삶의 지향 기회!

기본소득



토론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회적 관계의 가치와 방식

서 경 현

삼육대학교 교수

발제자가 강조한 것처럼 현시대에서도 사회관계의 가치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생존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떨어지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관계는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고독과 외로움이 타인이나 환경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공격성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은 혼자라는 것이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행복에 대한 추구를 생존의 본능으로 보기도 하지만 행복이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善)이라는 것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본다면, 긍정적인 사회관계에 대한 욕구는 행복보다 생존과 더 관계가 있어 의식적인 것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무의식적인 추동의 힘도 강할 것이다.

관계에 대한 추구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례로 십여 년 전부터 SNS상에서 사회적 활동이 시작되었고,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SNS상에서 사회적 교류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와 사진보정 기술이 발전하여 SNS상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기를 어느 정도 연출하여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SNS상에서의 관계와 그곳에서 제시된 자기가 현실세계와 통합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셀카(Selfie)에 집착하는 것은 자기만족 뿐 아니라 SNS상에서의 관계에 너무 고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로움의 건강에 대한 역기능적 효과가 흡연이나 비만 혹은 고혈압에 육박하는 정도이며, 그런 이유의 직간접적 기제들이 소개되었다. 1965년 Breslow에 의해 시작된 Alameda County 역학연구에서 7,000여명을 종단적으로 추적해 보니 애초 집중했던 일곱 가지 건강관련 습관 중에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이나 간식은 건강에 치명적이지 않았으나, 예상 외로 사회적 관계(사회망)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부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적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크게 높았으며, 결혼했으나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가 된 사람들의 사망 확률이 매우 높았다.

Alameda County 연구는 50여 년 전에 시작한 것인데 온라인상으로도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현시대를 사는 사람의 경우도 혼자 산다는 것이 건강에 치명적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인들도 관계추구에 대한 본능적 욕구는 그대로인데 말이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혼자 솔로로 살면서 충분히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 혼자 살면서 관계에 대한 요구를 채우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있다. 또한 한국과 같이 집단주의 문화에는 ‘우리’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환경들이 있다. 동호회 형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맺어진 관계에도 오프라인 모임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계가 조금 더 현실화되기도 한다. 또한 앞서 SNS 상에서의 관계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지만, SNS가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관계추구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도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적 제약이 없게 되는 기술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관계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까?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일까? 4차 산업혁명의 시작되는 시점인 지금도 TV광고에서는 스마트기기가 TV와 스마트폰, 컴퓨터는 물론 집안의 기타 전자기기를 편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하고 일명 스마트지능이라고 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며 인지적 요구와 감성적 요구를 충족해 주는 방식으로 혼자 사는 개인의 고독 및 관계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만약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독거가정에 보급된다면 가족을 대체하거나 관계의 차원에서 반려동물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완전히 인간관계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이성 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다면, 인류의 존속이 불가능할 수 있어 그 이전에 법적 제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그 순기능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예상해 보자면 4차 산업혁명에서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생산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개인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상호작용 혹은 관계 시스템이 개발될지 모른다. 아니면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을 두어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기술이 서비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30년 전에 스마트폰이나 SNS 등을 상상도 못했던 것을 보면 4차 산업혁명 미래에 우리가 관계하는 방식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토론글:

AI 인간 행복의 장애물 VS. 조력자 - AI와 인간의 연결

김 범 준
경기대학교 교수

I. 발표 내용에 대한 반추

1. 행복의 문제를 AI와 관련지어 생각해 봤다는 점에서 미래의 문명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움.
2. AI의 영역들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고려
3. AI의 장점과 한계를 보여주는 줌
4. 인지 심리학의 흥미로운 연구 소개

II. 발표를 듣고 떠 오른 생각

1. AI가 인간과 같을 수 있을까?
 -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알까?
 - 이를 기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2. AI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 나는 AI를 원하는가?
(cf. 핸드폰이 필요했을까?)

제 3부

[Classic Concert 현악4중주]

Man on the String



꿈과 희망,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을 향하여!

Man on the String은 4명의 남자 연주자들로 구성되어있는 현악4중주 팀입니다. 음악을 통해 관객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연주자와 관객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Man on the String은 클래식 뿐 아니라 영화음악, 가요, 여러 나라의 민속음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연구,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대의 분위기와 계절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장르의 '주제'를 정해 연주하는 것이 팀의 가장 큰 특징이며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함께 진행합니다.



1 바이올린 **이기준**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String&Friends 단원
- 하바스트링앙상블 단원
- 춘천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 Man on the String 단원



2 바이올린 **이도영**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석사(Master) 졸업
- String&Friends 단원
- 이탈리아 "Citta di Barletta" 국제콩쿨 2위
- 일본대사관 주최 음악연주제 1위
- Man on the String 단원



비올라 **이홍우**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String&Friends 단원
- 춘천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 Man on the String 단원



첼로 **이기석**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String&Friends 단원
- 앙상블 "Co-men" 단원
- Man on the String 단원



연주곡

1. Divertimento- W.A Mozart

'Divertimento'의 뜻은 '즐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 말로 귀족들의 파티 등에서 흥겨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연주되던 곡임.

2. Humoreske - A. Dvorak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는 미국 국립음악 원장으로 재직 중 휴가차 들린 고국(체코)에서 작곡했으며 아름다운 가요풍의 멜로디와 애수를 띤 가벼운 무도풍의 곡임.

3. Traumerei- R.Schumann

트로이메라이란 '꿈꾸는 일' '공상' 등을 뜻하는 말로, 슈만의 '어린이의 정경' 중 7번째 곡이며, 아내 클라라와의 사랑으로 행복할 때 작곡한 곡으로, 어린이의 따뜻하고 소박한 꿈을 표현한 듯 잔잔하고, 평화로움.

4. Salut D'Amour(사랑의인사) - E. Elgar

5. Morning mood - E.Gri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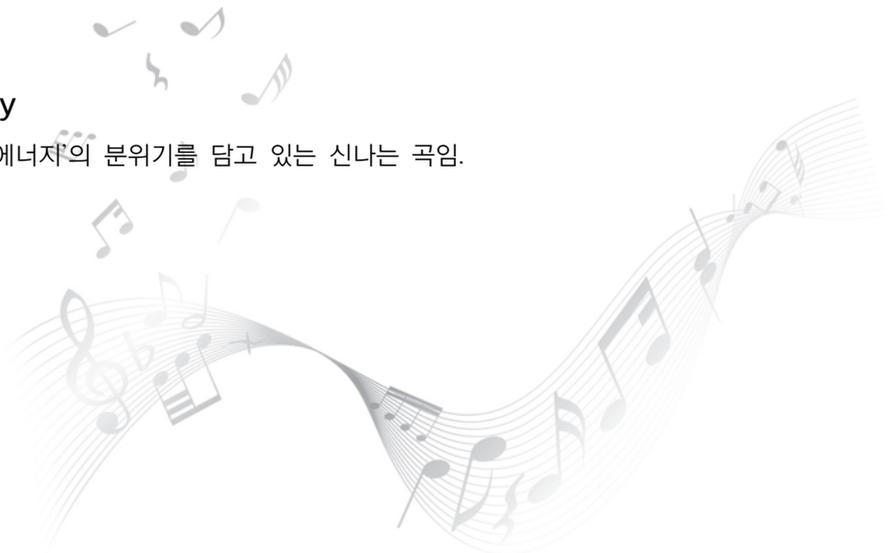
에드워드 그리그가 작곡한 '페르긴트 모음곡' 중 제1곡 아침의 기분(Morning Mood), 배를 타고 장사를 다니던 중, 모로코에서 맑은 아침 일출의 기분을 묘사한 음악입니다. 아침 해가 뜨는 듯한 부드럽고도 활기를 주는 곡임.

6. The Entertainer- S.Joplin

Rag Time (Jazz)로, 흑인이 백인의 악기와 백인의 화성학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한 음악장르로서 'The Sting' 영화의 Ost로도 쓰였음. 밝고 신나는 것이 특징임.

7. Positive Energy

제목 그대로 '긍정 에너지'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신나는 곡임.



구두 논문 발표 초록



구두발표 일정

제 1발표장 하이테크관 B1층 002호

사회 : 문 은 식 (강원대학교)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4:30 - 14:40	자기효능감 수준별 대표적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 증상: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을 중심으로	배용순 박영신 이임순
14:40 - 14:50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생활만족도 및 심리특성의 관계	송옥란 박영신 이창주
14:50 -15:00	한국인, 베트남인과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심리특성 차이	레황바오짬 박영신
15:00 - 15:10	부부갈등의 원인, 대처와 사회적 지원	남인순 박영신

제 2발표장 하이테크관 B1층 003호

사회 : 이 상 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시간	발표제목	발표자
14:30~14:40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효도: 부모자녀관계와 어려움극복효능감의 영향	김정실 박영신
14:40~14:50	청소년의 자발적 학교이탈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 연구	김연정 주경필
14:50~15:00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원인	유효숙 박영신 한미순
15:00~15:10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양환옥 박영신

* 발표자의 소속은 지면관계상 생략되었음.

구두발표 사회자 소개



문은식
강원대학교 교수

충남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교육심리학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이사(2014~15년)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영재교육학회 회장,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학회발전기획위원장, 한국인간발달학회 감사, 한국교육심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인관계심리학(공저), 2018, 공동체」, 「심리학개론(2판, 공저), 2017, 양서원」, 「진로탐색과 취업전략(공저), 2016, 공동체」, 「교육심리학(2판, 공저), 2015, 공동체」 등이 있다. 최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심리적 안녕, 부모교육 및 다문화 학습컨설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란
인하공업전문대학
강사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상담 및 임상심리학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인하공업 전문대학 어학교양학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와 한국인간발달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대학생 및 고교생을 대상으로 청년기무기력에 관해 비교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2014, 2016)에 한국인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한일대학생의 사고 및 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2015, 2016)에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학회(2017)에 중등교사의 상담전문성 역량 강화에 관한 요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3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하여 인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국내 신경정신과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사회진출 전 대학생의 인성과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기효능감 수준별 대표적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 증상: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을 중심으로

배용순, 박영신, 이임순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joy8479@hanmail.ne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대표적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대한 토착심리를 탐색하고, 나아가 자기효능감 수준별 우울 증상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대상은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 총 350명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3)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우울증과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7 \sim .94$ 로 양호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2/3 이상의 대단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학업 스트레스 다음으로 진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가정문제 스트레스,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반응 경향은 자기효능감 수준에 관계없이 일치하였다. 둘째, 한국 청소년의 우울 증상은 자기효능감 수준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욱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을 중심으로 대표적 스트레스 사건을 탐색하고 자기효능감 수준별 우울 증상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일반계고등학교 남학생 총 350명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3)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수준별은 평균(3.89)을 중심으로 상집단은 3.90이상, 하집단은 3.88이하의 두 집단으로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Bandura, 1995)과 우울(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7 \sim .94$ 로 양호하였다. 우울(CES-D)척도는 Radloff (1977)가 제작

한 척도로서,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역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수준별 대표적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 증상을 알아보고자 질적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이 지각하는 대표적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 학업이 60%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진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가정문제와 학교생활이 포함되었다. 자기효능감 수준별 상집단과 하집단의 반응경향은 같은 순이었다(<표 1> 참조).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의 우울 증상은 자기효능감 수준 집단별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집단($M=1.86$)이 낮은 하집단($M=2.23$)보다 우울 증상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논의 및 결론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이 지각하는 대표적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대표적이었다. 이는 청소년 2명 중에서 1명 정도가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박영신, 전성숙, 손주연, 박영자, 송옥란, 썸, 2016)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청소년의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은 학업성취(김의철, 박영신, 김경자, 2011)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경험으로는 학업실패를 지적한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김경자, 2011)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우울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난 결과(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Bae, Y. S., Park, Y. S., 201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청소년들의 정서와 심리에 대한 특성을 찾아 우울 원인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탐구가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표 1> 자기효능감 수준별 대표적 스트레스 사건

	전체(%)		자기효능감			
			상집단(%)		하집단(%)	
1. 학업	135	(64.6)	66	(66.0)	69	(63.3)
2. 진로	32	(15.3)	13	(13.0)	19	(17.4)
3. 가정문제	14	(6.7)	7	(7.0)	7	(6.4)
4. 학교생활	12	(5.7)	6	(6.0)	6	(5.5)
5. 없음	6	(2.9)	4	(4.0)	2	(1.8)
6. 건강문제	4	(1.9)	2	(2.0)	2	(1.8)
7. 기타	6	(2.9)	2	(2.0)	4	(3.7)
총합계	209	(100.0)	100	(100.0)	109	(100.0)

<표 2> 자기효능감 수준별 우울 증상의 차이 t-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N	M	SD	t
우울	자기효능감 상집단	152	1.86	.39	-7.81 ***
	자기효능감 하집단	168	2.23	.46	

***p<.001

참고문헌

- 김의철, 박영신, 김경자 (2011). 청소년과 부모의 미래성취 의식,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과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8(5)**, 29- 62.
- 박영신 (2013). 현재 당신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자유반응형 질문지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김경자 (2011).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실패 관련 의식 분석 **교육학연구, 49(1)**, 1-33.
- 박영신, 전성숙, 손주연, 박영자, 송옥란, 째 (201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487-522.
-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청소년이 느끼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 정책학회 KCI, 10(8)**, 327-333.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e, Y. S., Park, Y. S (2017). Self-Efficacy and Stress: Korean Male High School Students. AASP 2017. Conference: Making a Difference with Social Science. 153-15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생활만족도 및 심리특성의 관계

송옥란, 박영신, 이창주

인하대학교

vision98song@hanmail.ne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생활만족도 및 심리특성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총 1,375명(초 297, 중 389, 고 384, 대 305)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6)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 α 계수는 .68~.88이었다. 변인간의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신뢰의식(부모 신뢰, 교사 신뢰, 친구 신뢰, 한국사회 신뢰, 일반적 신뢰)과 생활만족도, 행복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일반적 신뢰의 조심과 생활만족도, 행복은 부적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스트레스 증상, 우울, 공격성은 부적의 관계였으나 일반적 신뢰의 조심과 스트레스 증상, 우울,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였다. 넷째,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도덕적 이탈은 부적 관계인 반면 일반적 신뢰의 조심과 도덕적 이탈은 정적인 관계였다.

연구목적

유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나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마땅히 행해야 할 덕목으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가르친다. 어질고(仁) 옳으며(義) 예의(禮)를 갖추는 것과 같은 인격적인 품성을 우선 형성한 뒤에 지식(智)을 획득하고 그 후에 타인과의 신뢰(信)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사회생활을 할 정도로 성장하였을 때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타인과 신뢰관계가 형성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청소년의 신뢰 알아보는 것은 청소년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생활만족 및 심리특성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총 1,375명(초 297, 중 389, 고 384, 대 305)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6)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68~.88이었다.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생활만족도 및 심리특성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신뢰의식(부모 신뢰 및 교사 신뢰, 친구 신뢰, 한국사회 신뢰, 일반적 신뢰)과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행복은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 중 부모 신뢰와 가정생활만족도($r=.47$), 교사 신뢰와 학교생활만족도($r=.48$)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 일반적 신뢰의 조심과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행복은 부적의 관계였다(<표 1> 참조).

둘째,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자기조절학습효능감 및 어려움극복효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다(<표 2> 참조).

셋째,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스트레스 증상, 우울, 공격성은 부적 관계였다. 그러나 일반적 신뢰의 조심과 스트레스 증상, 우울, 공격성은 정적 관계였다(<표 3> 참조).

넷째,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도덕적 이탈의 도덕적 정당화는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일반적 신뢰의 조심과 도덕적 정당화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부모, 교사, 친구, 일반적 신뢰와 상대적 비교는 부적 관계였고, 일반적 신뢰의 조심과 상대적 비교는 정적 관계였다(<표 4> 참조).

논의 및 결론

첫째, 청소년 신뢰는 생활만족도, 행복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행복감과 신뢰감은 정적 상관관계로 행복감이 증가할수록 신뢰감이 증가하고(김소연, 박보영, 이현수, 정선훈, 2015),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길성, 2002). 따라서 신뢰는 삶의 질에 의미 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교사를 신뢰할수록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에 대한 신뢰가 자기조절학습동기효능감으로 의미 있게 설명된 연구결과(김난옥, 박영신, 김의철, 2005)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김성일, 2014)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 신뢰는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뢰는 스트레스 요인과 부적의 관계(조은형, 박영신, 2017)이며, 우울을 포함한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선행연구(박길성, 2002)를 본 연구 결과는 지지한다.

넷째, 청소년 신뢰와 도덕적 이탈은 전반적으로 부적 관계로, 일반적 신뢰의 조심은 도덕적 이탈과 정적 관계로 확인되었다.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에 대한 심리 특성을 분석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는 정도가 강했으나, 일반적인 신뢰의식이 약했으며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이탈된 청소년은 신뢰의 정도가 낮은 반면 타인과 세상에 대해 조심하는 불신의 마음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난옥, 박영신, 김의철 (2005). 중학생의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신뢰의식 연구.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5년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15-216.
 김성일 (2014). 체육교사가 지도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중학생들의 체육교사신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교과태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3(1), 199-208.

김소연, 박보영, 이현수, 정선훈 (2015). 20대의 행복감과 대인신뢰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2015년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460.

박길성 (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109-139.

박영신 (2016). 청소년 신뢰의식 질문지. 미간행 출판물.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특성 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45-76.

조은형, 박영신 (2017). 직업유형별 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7년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67-68.

<표 1>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생활만족도, 행복의 상관

생활만족도 행복	청소년 신뢰					일반적 신뢰	
	부모 신뢰	교사 신뢰	친구 신뢰	한국사회 신뢰	일반적 신뢰	조심	
가정생활	.47 ***	.29 ***	.20 ***	.16 ***	.24 ***	-.05 *	
학교생활	.24 ***	.48 ***	.37 ***	.26 ***	.35 ***	-.10 ***	
행복	.25 ***	.34 ***	.28 ***	.23 ***	.31 ***	-.11 ***	

*p<.05, ***p<.001

<표 2>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자기효능감의 상관

자기효능감	청소년 신뢰					일반적 신뢰	
	부모 신뢰	교사 신뢰	친구 신뢰	한국사회 신뢰	일반적 신뢰	조심	
자기조절학습효능감	.19 ***	.25 ***	.16 ***	.16 ***	.22 ***	.01	
어려움극복효능감	.15 ***	.24 ***	.18 ***	.17 ***	.22 ***	-.01	

***p<.001

<표 3>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스트레스, 우울, 공격성의 상관

스트레스증상 우울 공격성	청소년 신뢰					일반적 신뢰	
	부모 신뢰	교사 신뢰	친구 신뢰	한국사회 신뢰	일반적 신뢰	조심	
스트레스 증상	-.11 ***	-.24 ***	-.18 ***	-.18 ***	-.17 ***	.12 ***	
우울	-.19 ***	-.25 ***	-.28 ***	-.15 ***	-.23 ***	.13 ***	
공격성	-.20 ***	-.20 ***	-.20 ***	-.10 ***	-.20 ***	.12 ***	

***p<.001

<표 4> 청소년의 신뢰의식과 도덕적 이탈의 상관

도덕적 이탈	청소년 신뢰					일반적 신뢰	
	부모 신뢰	교사 신뢰	친구 신뢰	한국사회 신뢰	일반적 신뢰	조심	
도덕적 정당화	-.08 **	-.15 ***	-.15 ***	-.10 ***	-.20 ***	.20 ***	
상대적 비교	-.14 ***	-.13 ***	-.12 ***	.00	-.11 ***	.06 *	

*p<.05, **p<.01, ***p<.001

한국인, 베트남인과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심리특성 차이

레 황바오짬,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baotram8686@gmail.co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베트남인 그리고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심리특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대상은 총 954명(한국인 342, 베트남인 323,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289)의 기혼여성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7)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측정변인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09 \sim .961$ 이었다. 사회경제적지위를 공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공변인 효과가 있었다.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세 집단의 심리특성 분석결과에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과 결혼이주 여성 집단보다 베트남 여성 집단이 자기효능감 및 가정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결혼이주 여성 집단이 한국인과 베트남 여성 집단보다 부부갈등,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특성이 더 높았으며 행복과 남편의 정서적 지원은 낮았다.

연구목적

한국과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교류를 해왔고 양국은 같은 동양권국가이며 문화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 베트남인과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심리특성 차이를 분석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총 954명(한국인 342, 베트남인 323,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289) 기혼여성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7)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변인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09 \sim .961$ 이었다. 여성 집단별 심리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경제적지위를 통제하여 공변량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경제적지위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과 가정생활만족도 그리고 남편의 정서적 지원에서 여성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각 하위변인의 교정 평균과 표준오차를 살펴보면, 가정생활만족도에서 베트남 여성 집단($M=4.02$, $SE=.0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여성 집단($M=3.91$, $SE=.03$)과 결혼이주 여성 집단($M=3.80$, $SE=.04$)의 순으로 나타났고 각각 이질집단으로 확인되었다. 행복과 남편의 정서적 지원에 있어서, 결혼이주 여성 집단($M=3.59$; 3.37 , $SE=.06$; $.04$)이 가장 낮았고 베트남 여성 집단($M=3.76$; 3.78 , $SE=.04$; $.06$)과 한국여성 집단($M=3.85$; 3.86 , $SE=.03$; $.05$)이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에서 모든 하위집단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자기효능감의 교정평균과 표준오차를 보면 자기조절효능감 및 부부관계효능감에서 베트남 여성 집단($M=4.40$; 3.95 , $SE=.03$, $.0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여성 집단($M=3.89$; 3.79 , $SE=.03$, $.04$) 그리고 결혼이주 여성 집단($M=3.76$; 3.68 , $SE=.04$)의 순이며 각각 이질집단인 것으로 밝혔다. 학습지도효능감에서 베트남 여성 집단($M=3.96$; $SE=.04$)이 가장 높았고 한국과 결혼이주 여성 집단은 같은 평균과 표준오차($M=3.72$; $SE=.04$)로 나타나 동질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양육어려움극복효능감 및 자녀와의사소통효능감에서 베트남 여성 집단($M=4.17$; 4.01 , $SE=.03$)은 가장 높았고 한국여성 집단($M=3.73$;

3.82; SE=.03)과 결혼이주 여성 집단(M=3.78; 3.75; SE=.04)이 동질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양육효능감에서 베트남 여성 집단(M=4.17; SE=.03)이 가장 높았고, 한국여성 집단(M=3.80; SE=.03)과 결혼이주 여성 집단(M=3.96; SE=.03)이 동질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여성 집단별 부정적 심리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집단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교정평균과 표준오차를 살펴보면 부부갈등 및 불안에서 결혼이주 여성 집단(M=2.10; 2.48; SE=.05)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한국여성 집단(M=1.68; 2.20; SE=.05)과 베트남 여성 집단(M=1.66; 2.11; SE=.05)이 동질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에서 결혼이주 여성 집단(M=2.66; SE=.05)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베트남 여성 집단(M=2.43; SE=.05) 그리고 한국여성 집단(M=2.29; SE=.05)의 순이며 이질집단임을 확인되었다. 우울에서 결혼이주 여성(M=1.92; SE=.0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여성 집단(M=1.78; SE=.04) 그리고 베트남 여성 집단(M=1.66; SE=.04)의 순이며 각각 이질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논의 및 결론

첫째, 한국인과 베트남인 그리고 결혼이주 여성의 심리특성은 사회경제적지위 공변인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지위를 단순히 사회계층 측면에서만 분석하였다. Fiske와 Markus(2012)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계층에 대한 분석이 타당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 어머니 집단이 한국과 결혼이주 여성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 표집대상 베트남 여성은 90%, 한국인 및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은 50%에 가까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국

인, 베트남인 그리고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초혼연령, 직업 또는 사회계층에 대한 차이가 있음(World Bank Group, 2017)을 고려해야 한다. 즉 취업여성이 전업주부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는 Kramer과 Kipins(1995)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차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혼이주 여성의 심리상태가 상대적으로 부정적 경향을 보인다. 즉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특성 및 부부갈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가정생활만족도, 행복 및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 등 긍정적 심리특성이 낮다.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여성보다 취약한 배경에 처해있다는 결과는 박순호, 빙팜과 카미야히로우(2012) 및 설동훈(2006)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의 부정적 심리특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범준 (2016). 사회계층의 심리: 문화적 사고성향(분석적-종합적 사고)과 사회비교성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4), 19-36.
- 박순호, 빙팜, 카미야히로우 (2012).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의 결혼 전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3), 268-282.
- 설동훈 (2006). 민족, 인종, 국민: 한국의 민족주의와 혼혈인의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Fiske, S. T., & Markus, S. R. (2012). *Facing socialclass: How societal rank influences interaction*. New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ramer, B. J., & Kipins, S. (1995). Elder-care and work-role conflict: Toward an understanding of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er burden. *The Gerontology*, 35, 340-348.
- World Bank Group (201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mployment by sector (검색일: 2018년 05월 04일).

부부갈등의 원인, 대처와 사회적 지원

남인순, 박영신
너나우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namis23@gmail.co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갈등의 원인, 부부갈등 상황에서 대처와 사회적 지원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대상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 1,000명(남 454, 여 546)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7)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이 생기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자녀 문제였다. 그 다음은 소통의 부재, 성격차이 순이었다. 둘째,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45.7%가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없음을 제외하면 성격차이가 중요한 원인이었다. 셋째, 부부갈등 상황에서 대처방법은 대화(53.1%)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넷째, 부부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 제공자는 없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스로 해결, 가족 순이었다. 사회적 지원 내용은 없음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다음이 대화였다.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부부갈등의 원인, 부부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사회적 지원 제공자 및 지원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부갈등의 대표적인 원인,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부부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부부갈등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원 제공자와 지원내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 1,000명(남 454, 여 546)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7)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부갈등의 대표적인 원인은 '자녀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통의 부재', '성격차이'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혼인상태에 따른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동거집단은 '자녀 문제', 별거/이혼집단은 '성격차이'를 대표적으로 지적하였다(<표 1>참조).

둘째,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없음'이 가장 많았다. '없음'을 제외하면, '성격차이'가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동거집단의 경우 '없음', '성격차이'를 응답한 반면, 별거/이혼집단은 '참기 힘들', '부부갈등'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표 2>참조).

셋째, 부부갈등 상황에서 대처방법은 53.1%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대화'였다. 동거집단에서는 '대화'가 대표적이었으나, 별거/이혼집단은 '말다툼'을 지적하였다(<표 3>참조).

넷째, 부부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 제공자는 '없음'이 대표적이었고, 다음이 '스스로 해결'이었다. 동거집단이 '없음', '스스로 해결'이라 응답하였고, 별거/이혼집단은 '없음', '친구'를 지적하였다. 부부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 내용은 '없음(50.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화', '조언'의 반응이었다. 혼인상태에 따른 동거집단과 별거/이혼집단은 '없음'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다(<표 4>~<표 5>참조).

논의 및 결론

첫째, 부부갈등이 생기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자녀 문제'였다. 즉 육아와 자녀 문제, 교육,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부 간에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가족관계 갈등과 자녀교육문제가 포함된 가정생활이 가장 고통스러운 생활사건임을 밝힌 연구결과(박

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김경자, 2016)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없음'이 가장 많았다. '없음'은 부부갈등이 없고 이혼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을 의미하며, '없음'을 제외하면 '성격차이(16.9%)'가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성격차이와 의견불일치(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4)이며, 중년 성인 부부갈등의 원인이 성격차이임을 밝힌 연구결과(남인순, 박영신, 정갑순, 2014; 남인순, 박영신, 2015)와 일치한다.

셋째, 부부갈등 상황에서 대처방법은 '대화'였다. 동거집단의 대처방법은 '대화'였고, 별거/이혼집단은 '말다툼'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유지 집단의 경우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이혼결정 집단의 경우 문제를 회피하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대처한다는 연구결과(노진숙, 함경애, 김미옥, 김환구, 천성문, 2014)와 일치한다.

넷째, 부부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 제공자와 지원 내용은 '없음'이 가장 많았다. 이는 부부갈등을 두 사람만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며,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결혼 전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참조문헌

김경자 (2016). 한국 청소년과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토착 심리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인순, 박영신 (2015). 중년 여성의 부부갈등요인: 연령별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22.

남인순, 박영신, 정갑순 (2014). 중년 남성의 부부갈등요인: 연령별 비교.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6-98.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노진숙, 함경애, 김미옥, 김환구, 천성문 (2014). 기혼자들의 결혼유지와 이혼결정 과정 분석. **재활심리연구**, 21(1), 97-115.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4). 성인남녀의 이혼과정 각 단계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93-118.

<표 1> 혼인상태별 부부갈등이 생기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전체(%)	혼인상태별	
		동거(%)	별거/이혼(%)
1. 자녀 문제	202(24.0)	201(24.2)	1(9.1)
2. 소통의 부재	154(18.3)	152(18.3)	2(18.2)
3. 성격차이	143(17.0)	139(16.8)	4(36.4)
4. 경제적 문제	115(13.7)	112(13.5)	3(27.3)
5.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68(8.1)	67(8.1)	1(9.1)
6. 생활태도 문제	62(7.4)	62(7.5)	-
7. 가사분담	35(4.2)	35(4.2)	-
8. 사소한 말다툼	33(3.9)	33(4.0)	-
9. 기타	28(3.3)	28(3.4)	-
계	840(100.0)	829(100.0)	11(100.0)

<표 2> 혼인상태별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전체(%)	혼인상태별	
		동거(%)	별거/이혼(%)
1. 없음	356(45.7)	355(46.2)	1(10.0)
2. 성격차이	132(16.9)	131(17.0)	1(10.0)
3. 소통의 부재	82(10.5)	82(10.7)	-
4. 부부갈등	53(6.8)	50(6.5)	3(30.0)
5. 참기 힘들	48(6.2)	44(5.7)	4(40.0)
6. 경제적 문제	31(4.0)	30(3.9)	1(10.0)
7.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26(3.3)	26(3.4)	-
8. 배우자에 대한 불신	19(2.4)	19(2.5)	-
9. 생활태도 문제	18(2.3)	18(2.3)	-
10. 자녀 문제	14(1.8)	14(1.8)	-
계	779(100.0)	769(100.0)	10(100.0)

<표 3> 혼인상태별 부부갈등 상황에서 대처방법

	전체(%)	혼인상태별	
		동거(%)	별거/이혼(%)
1. 대화	441(53.1)	440(53.7)	1(9.1)
2. 참조 기다림	117(14.1)	116(14.1)	1(9.1)
3. 말을 안 함	107(12.9)	105(12.8)	2(18.2)
4. 말다툼	53(6.4)	48(5.9)	5(45.5)
5. 회피함	49(5.9)	48(5.9)	1(9.1)
6. 이해하려 노력함	41(4.9)	41(5.0)	-
7. 기타	23(2.8)	22(2.7)	1(9.1)
계	831(100.0)	820(100.0)	11(100.0)

<표 4> 혼인상태별 부부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 제공자

	전체(%)	혼인상태별	
		동거(%)	별거/이혼(%)
1. 없음	334(40.6)	329(40.5)	5(50.0)
2. 스스로 해결	155(18.9)	155(19.1)	-
3. 가족	116(14.1)	115(14.2)	1(10.0)
4. 친구	87(10.6)	85(10.5)	2(20.0)
5. 부부끼리 해결	58(7.1)	57(7.0)	1(10.0)
6. 지인	44(5.4)	44(5.4)	-
7. 기타	28(3.4)	27(3.3)	1(10.0)
계	822(100.0)	812(100.0)	10(100.0)

<표 5> 혼인상태별 부부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의 내용

	전체(%)	혼인상태별	
		동거(%)	별거/이혼(%)
1. 없음	408(50.4)	403(50.5)	5(45.5)
2. 대화	139(17.2)	138(17.3)	1(9.1)
3. 조언	99(12.2)	99(12.4)	-
4. 정서적 지원	88(10.9)	84(10.5)	4(36.4)
5. 스스로 해결	52(6.4)	51(6.4)	1(9.1)
6. 갈등 중재	13(1.6)	13(1.6)	-
7. 부부끼리 해결	10(1.2)	10(1.3)	-
계	809(100.0)	798(100.0)	11(100.0)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효도: 부모자녀관계와 어려움극복효능감의 영향

김정실, 박영신
인천논곡초등학교
kjs795709@gmail.co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효도에 부모자녀관계와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부모자녀관계 변인으로 부모 희생, 부모 존경, 부모에 대한 죄송함을 하위변인으로 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분석대상은 중학생 298명(남 169, 여 129)이었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 = .78 \sim .90$ 이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관계는 어려움극복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에 대해 죄송하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았으며,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었다. 둘째, 부모자녀관계는 어려움극복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효도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었다. 즉 부모의 희생과 부모에 대한 존경 및 부모에 대한 죄송함에 대한 지각은 청소년의 어려움극복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부모에 대한 효도의 정도를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높은 학업성취가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효도에 부모자녀관계와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부모자녀관계의 하위변인을 부모 희생, 부모 존경, 부모에 대한 죄송함으로 하고, 어려움극복효능감을 포함하여 경로분석과 효과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중학생 총 298명(남 169, 여 129)이었다. 측정도구는 부모 희생과 부모 존경은 박영신과 김의철

(2006), 부모에 대한 죄송함은 박영신, 김의철과 정갑순(2004), 어려움극복효능감은 박영신과 김의철(2001), 학업성취는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와 이임순(2014), 효도는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과 이임순(2014)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 = .78 \sim .90$ 으로 양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자녀관계 세 하위변인 모두 어려움극복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그 중 부모 존경의 상관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r = .459$). 학업성취와 효도 모두 부모자녀관계보다 어려움극복효능감과 더 높은 정적 상관이었다. 학업성취와 효도 두 변인 간에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부모자녀관계는 어려움극복효능감에 대해, 어려움극복효능감은 학업성취와 효도에 대해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그 중 부모 존경이 어려움극복효능감에 미치는 경로계수(.431)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효도에 미치는 영향(경로계수=.326)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경로계수=.233)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자녀관계는 어려움극복효능감에 직접효과($p < .001$)가 있었고, 어려움극복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업성취($p < .01$)와 효도($p < .001$)에 의미 있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특히 부모 존경은 부모 희생이나 부모에 대한 죄송함에 비해 어려움극복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뿐 아니라 효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논의 및 결론

첫째,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인식하고,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을수록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어려움극복효능감은 학업성취와 호도 증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역동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나아가 학업성취(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와 호도(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증진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둘째, 부모 존경은 어려움극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부모 희생이나 부모에 대한 죄송함보다 자기효능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박영신, 김의철, 이상희, 김태우, 2015)와 일치한다. 부모존경은 어려움극복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와 호도에 대한 간접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업성취와 호도는 서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성취는 단순히 학업 성취만의 의미를 넘어 부모에 대한 호도 인식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이며, 자녀의 학업성취가 부모에게 가장 감동적인 호도임이 밝혀진 연구결과(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청소년의 높은 학업성취가 단순한 개인적 성취만이 아닌 관계적인 맥락으로 확산됨을 보여주며, 이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심리행동을 관계의 맥락에서 조망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박영신, 김의철 (2001). 청소년 학교폭력동과 환경 및 심리 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 자녀호도 관련 토착심리 탐구와 자녀호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 중, 고 대학생 부모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4), 87-120.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 청소년의 호도에 대한 지각과 학업성취: 부모 정서적 지원과 부모 관계효능감의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1(10), 415-443.
-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자녀가 지각한 호도의 구성개념과 형성: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 관계효능감이 자녀의 호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8(3), 421-454.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 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호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9(3), 505-542.

청소년의 자발적 학교이탈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 연구

김연정,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

miriam325@knou.ac.k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학교이탈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과 그 이후 삶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자발적 의지가 잘 드러난 청소년인권활동가와 자퇴관련 SNS를 운영하는 청소년과 후기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학교이탈 경험과 내면의 목소리에서 귀납적인 실체이론을 추출하고자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면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자료분석의 절차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하였다(Strauss & Corbin(1996)). 분석결과 청소년들의 자발적 학교이탈 과정은 심리적으로 학벌과 학력주의에 따른 차별을 내면화하면서도 끊임없는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과 미래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 다양한 과업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동반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고, 이후 유형분석과 과정분석을 수행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학교이탈 과정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연구목적

청소년의 자발적 학교이탈은 비행, 학습 부적응의 결과와는 결이 다른 공교육 제도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며 그 안에 담긴 교육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존테일러 개토, 2017). 청소년의 자발적 학교이탈을 사회적 문제 혹은 개인의 일탈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제한된 구조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수동적 존재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과정이다(전누리,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결정된 자발적 학교이탈이 청소년의 삶에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자한다. 또한 자발적 학교이탈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왔다라는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배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학교이탈을 결정하고 이후 자신의 방법으로 배움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현상에 합당한 개념들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적합한 변수가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근거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근거이론은 학교이탈을 선택한 청소년의 경험을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도우며, 학교이탈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과 그 이후 삶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실체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기반으로 학교이탈을 선택한 청소년이 가족, 학교, 또래집단 등 그들이 속한 사회와 어떻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하였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명소연, 2016; 배미경, 2016;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통하여 자발적 학교이탈 청소년의 학교이탈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당사자의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연구에 담고자 한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는 중학교 자퇴부터 고등학교 자퇴까지 다양한 시점에 학교이탈을 선택하였다. 연령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자퇴 1개월 경과부터 자퇴 10년 경과까지 비교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이론적표본추출하였다. 인터뷰는 연구를 위해 사전동의서를 작성하고 녹음되었으며 전사과정을 통해 문서화하였다. 코딩작업은 질적연구 분석프로그램인 MAXQDA(2018)을 사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272개의 개념과 44개의 하위범주, 20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분석결과는 ‘그들의 시간을 버리고 내 시간 입기’ ‘최종 목적지는 내가 나인 삶’ 등 정체성 확립과 성인기로의 이행에 대한 도전과정을 스스로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학교 교육 및 시스템이 자신의 진로, 적성, 인생 목표와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적극적인 문제 인식에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청소년에 있어 학교가 반드시 적응해야 할 대상이 아닌 선택의 대상임을 규정하였고(김혜영, 2002), 학교를 떠나는 것을 부적응에 대한 소극적 반응이 아닌 적극적 자기보호 행동으로 설명하였다(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학교를 나온 것이지 배움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 이탈 이후 ‘배움의 중단’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한국 사회에 ‘탈학교’라고 호명할 수 있는 현상이 시작된 뒤,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배움이 곧 학교라는 인식아래 교육의 전반을 제도권 공교육이 주도하고, 재정적 지원 역시 학교 교육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2004).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체제 구축운영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명소연, 조진옥(2016).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연구**, 24(2), 75-98.
- 배미경(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탈학교 의미연구-근거이론 방법으로-**.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2002).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육구와 심리적 경험조사.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46.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누리(2016). **고등학생운동 참여자의 사회진출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청소년 복지연구**, 15(1), 121-153.
- John Taylor Gatto(2017). **바보만들기** (조응주 역). 서울: 민들레 개정판.
- Strauss A. & Corbin J.(1996). **근거이론의 이해** (김수지, 신경림). 서울: 도서출판한울.(원서출판: 1990)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원인

유효숙, 박영신, 한미순
함현중학교
yhsct@korea.k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원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중학생 총 752명(관심군 392, 정상군 360)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의 힘든 점,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와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다. 측정도구로는 박영신(2017)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공부하기가 과반수로 대표적이었으며, 없음, 친구관계, 등교하기, 괴롭힘 등의 순이었다. 둘째,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때는 피곤할 때, 공부가 힘들 때, 없음, 친구관계가 좋지 않을 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공부가 힘들어서, 친구관계가 좋지 않음, 재미가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영향을 준 사람에는 친구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선생님, 나 자신, 부모님 및 가족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목적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중학생 총 752명(관심군 392, 정상군 360)이었다. 측정도구로는 박영신(2017)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적으로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공부하기가 과반수로 대표적이었으며, 없음, 친구관계, 등교하기, 괴롭힘 등의 순이었다. 관심군/정상군 집단별 분석 결과, 공부하기는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는데, 관심군 집단(47.8%)은 정상군 집단(55.6%)보다 더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친구관계는 관심군 집단(24.2%)이 정상군 집단(8.4%)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1>참조).

둘째,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때는 피곤할 때(35.5%), 공부가 힘들 때(19.3%), 없음(14.2%), 친구관계가 좋지 않을 때(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집단(14.7%)은 정상군 집단(7.4%)보다 친구관계가 좋지 않을 때를 더 많이 지적하였다(<표 2>참조).

셋째,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공부가 힘들어서(13.9%), 친구관계가 좋지 않음(9.3%), 재미가 없어서(5.7%) 등의 순이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관심군(46.4%) 집단은 정상군(75.7%) 집단보다 낮았다(<표 3>참조).

넷째,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영향을 준 사람은 친구(17.4%), 선생님, 나 자신, 부모님 및 가족 등이 포함되었다. 관심군 집단(25.7%)은 정상군 집단(8.3%)보다 친구를 지칭한 비율이 세배 이상 높았다(<표 4>참조).

논의 및 결론

첫째, 학업부담은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과도한 학업부담이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정현, 윤여진, 정인경, 2016)는 점에서 교육적 함의가 있다.

둘째, 원만하지 않은 친구관계는 청소년 학교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친구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겪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성윤숙, 2005; Troop-Gordon, Visconti, & Kuntz, 2010)을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의 경우 학업과 친구관계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학교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효숙, 2018). 학업 및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의 필요를 시사한다.

<표 1>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범주	구분	전체(%)	관심군/정상군별	
			관심군(%)	정상군(%)
1. 공부하기		382(51.6)	184(47.8)	198(55.6)
2. 없음		146(19.7)	60(15.6)	86(24.2)
3. 친구관계		123(16.6)	93(24.2)	30(8.4)
4. 등교하기		42(5.7)	16(4.2)	26(7.3)
5. 괴롭힘		15(2.0)	12(3.1)	3(.8)
6. 학교생활적응		13(1.8)	10(2.6)	3(.8)
7. 선생님과의 관계		11(1.5)	6(1.6)	5(1.4)
8. 열악한 환경		9(1.2)	4(1.0)	5(1.4)
총합계		741(100.0)	385(100.0)	356(100.0)

<표 2>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때

범주	구분	전체(%)	관심군/정상군별	
			관심군(%)	정상군(%)
1. 피곤할 때		258(35.5)	111(29.7)	147(41.8)
2. 공부가 힘들 때		140(19.3)	72(19.3)	68(19.3)
3. 없음		103(14.2)	45(12.0)	58(16.5)
4. 친구관계가 좋지 않을 때		81(11.2)	55(14.7)	26(7.4)
5. 학교 가야 하는 날		65(9.0)	37(9.9)	28(8.0)
6. 귀찮을 때		28(3.9)	19(5.1)	9(2.6)
7. 안 좋은 일 있을 때		23(3.2)	19(5.1)	4(1.1)
8. 괴롭힘 당할 때		17(2.3)	14(3.7)	3(.9)
9. 날씨 때문에		11(1.5)	2(.5)	9(2.6)
총합계		726(100.0)	374(100.0)	352(100.0)

<표 3>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

범주	구분	전체(%)	관심군/정상군별	
			관심군(%)	정상군(%)
1. 그만두고 싶은 적 없음		443(60.4)	178(46.4)	265(75.7)
2. 공부가 힘들어서		102(13.9)	67(17.4)	35(10.0)
3. 친구관계가 좋지 않음		68(9.3)	54(14.1)	14(4.0)
4. 재미없어서		42(5.7)	27(7.0)	15(4.3)
5. 몸이 힘들어서		36(4.9)	21(5.5)	15(4.3)
6. 괴롭힘		18(2.5)	14(3.6)	4(1.1)
7. 가정불화		13(1.8)	12(3.1)	1(.3)
8. 선생님 때문에		12(1.6)	11(2.9)	1(.3)
총합계		734(100.0)	384(100.0)	350(100.0)

<표 4>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범주	구분	전체(%)	관심군/정상군별	
			관심군(%)	정상군(%)
1. 그만 두고 싶은 적 없음		471(64.6)	194(50.9)	277(79.6)
2. 친구		127(17.4)	98(25.7)	29(8.3)
3. 선생님		45(6.2)	32(8.4)	13(3.7)
4. 나 자신		34(4.7)	22(5.8)	12(3.4)
5. 부모님 및 가족		33(4.5)	25(6.6)	8(2.3)
6. 기타		19(2.6)	10(2.6)	9(2.6)
총합계		729(100.0)	381(100.0)	348(100.0)

참고문헌

- 김정현, 윤여진, 정인경 (2016). 청소년의 학업소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8(1), 71-85.
- 박영신 (2017).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원인과 영향 질문지. 성윤숙 (2005). 학교중도 탈락 청소년의 중퇴 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유효숙 (2018)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Troop-Gordon, W., Visconti, K. J., & Kuntz, K. J. (2010). Perceived popularity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declining school adjustment among aggressive youth.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1(1), 125-151.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양환옥, 박영신

인천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75yanghy@hanmail.ne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대상은 중학생 총 363명(남 176, 여 187)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4)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변인 신뢰도는 .56 ~ .92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하위변인 중 부모존경, 정서적지원, 부모에 대한 기대 일치와 학교생활만족도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존경과 행복은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하위변인 중 갈등, 무관심, 거부, 적대와 가정생활만족도는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무관심과 행복은 부적상관, 통제는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전체)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활만족도(전체)와 행복 모두 부모존경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적지원, 주관성적, 통제, 적대와 갈등이 포함되었다.

연구목적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서구문화와 다른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한국은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 다르게 관계주의 문화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여도 자녀가 부모와 여전히 심리적으로 연결 고리를 유지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4).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중학생 363명(남 176, 여 187)이었으며, 측정도구로는 박영신(2014)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측정변인의 신뢰도는 부모자녀관계($\alpha = .70 \sim .89$), 생활만족도($\alpha = .56 \sim .82$), 행복($\alpha = .92$)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배경정보의 하위변인 중 주관성적, 객관성적은 학교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전체), 행복과 약간의 정적상관을 보였다(<표 1>참조).

둘째, 긍정적 부모자녀관계의 변인인 부모존경, 정서적지원, 부모에 대한 기대일치는 모든 생활만족도($r = .33 \sim .65$)와 행복($r = .50 \sim .55$)과 높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취압력은 생활만족도 전체($r = .24$)와 행복($r = .28$)에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표 2>참조).

셋째,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변인 중 갈등, 무관심, 거부, 적대와 가정생활만족도는 높은 부적상관($r = -.50$)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생활만족도(전체)와 학교생활만족도와 생활전반만족도와 행복에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에, 통제는 낮은 정적상관이었다(<표 3>참조).

넷째,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및 행복에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중다회귀 분석한 결과, F 검증 결과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부모존경은 행복($\beta = .34$)과 생활만족도 전체($\beta = .31$)에서 β 값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생활만족도(전체)에서는 정서적지원, 주관성적이었으며, 행복에서는 주관성적, 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존경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전체)와 행복을 높이는데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표 4>참조).

논의 및 결론

첫째, 부모존경이 생활만족도(전체)와 행복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존경이 생활만족도와 행복(손주연, 2017)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손주연, 박영신, 김의철(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가장 존경하는 사

람은 부모님이고, 존경하는 이유는 능력과 업적이 아닌 부모의 희생, 헌신, 성실, 노력 그리고 혈연관계(손주연, 박영신, 김의철, 2014)이며, 청소년들은 부모를 순종하거나 본받으려 하는 모습에서 존경심리가 내재해 있다는 연구결과(손주연, 2017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지원을 많이 해 줄수록 자녀는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지원 즉, 부모의 정서적지원이 자녀의 생활만족도(박영신, 김의철 2008)와 행복(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조은정, 2014)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미있는 타인 특히, 부모자녀간의 정서적지원을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 준다.

셋째, 자녀가 주관성적이 높다고 느낄수록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함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취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더욱 행복(박영신, 김의철, 2009b)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의미있다(문은식, 2007)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참고 문헌

문은식(2007).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되는 사회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1(2), 459-475.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자녀가 지각한 효도의 구성개념과 형성: 부모의 정서적지원과 부모의 관계효능감이 자녀의 효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8(3), 422-454.

손주연 (2017). **한국 학생의 존경의식: 토착심리 탐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주연, 박영신, 김의철 (2014). 한국 청소년과 성인이 지각한 존경의 토착심리분석: 부모, 조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제2차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55-156.

조은정 (2014).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7(1), 103-126.

<표 1> 배경정보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및 행복의 상관

	배경정보			
	성별	객관성적	주관성적	기대허락
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09	.12 *	.15 **	.11 *
학교생활만족도	-.09	.26 ***	.27 ***	.08
생활전반만족도	.00	.10	.14 *	.08
생활만족도(전체)	-.08	.20 ***	.23 ***	.11 *
행복	-.01	.20 ***	.24 ***	.12 *

* $p < .05$, ** $p < .01$, *** $p < .001$

<표 2> 긍정적 부모자녀관계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및 행복의 상관

	긍정적 부모자녀관계				
	정서적 지원	성취 압력	부모 희생	부모 존경	부모에 대한 기대일치
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65 ***	.23 ***	.43 ***	.65 ***	.61 ***
학교생활만족도	.40 ***	.24 ***	.28 ***	.39 ***	.33 ***
생활전반만족도	.41 ***	.11 *	.26 ***	.43 ***	.40 ***
생활만족도(전체)	.59 ***	.24 ***	.40 ***	.60 ***	.54 ***
행복	.50 ***	.28 ***	.34 ***	.55 ***	.51 ***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부정적 부모자녀관계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및 행복의 상관

	부정적 부모자녀관계				
	통제	갈등	무관심	거부	적대
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08	-.50 ***	-.50 ***	-.50 ***	-.50 ***
학교생활만족도	.14 **	-.26 ***	-.30 ***	-.26 ***	-.23 *
생활전반만족도	.00	-.32 ***	-.31 ***	-.39 ***	-.34 *
생활만족도(전체)	.10	-.44 ***	-.45 ***	-.46 ***	-.43 ***
행복	.24 ***	-.33 ***	-.41 ***	-.37 ***	-.33 ***

** $p < .01$, *** $p < .001$

<표 4> 배경정보,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및 행복의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R2	F
가정 생활 만족도	부모존경	.23	.22 **	.66	.43	273.80 ***
	정서적지원	.27	.29 ***	.71	.50	178.94 ***
	적대	-.19	-.18 ***	.72	.52	128.65 ***
생활 전반 만족도	주관성적	.10	.11 **	.73	.53	101.04 ***
	성별	-.18	-.10 **	.73	.54	83.23 ***
	부모에 대한 기대일치	.16	.16 *	.74	.55	71.38 ***
생활 전반 만족도	정서적지원	.17	.24 ***	.40	.16	70.43 ***
	주관성적	.18	.25 ***	.48	.23	52.98 ***
	부모존경	.16	.20 **	.50	.25	39.24 ***
생활 전반 만족도	부모존경	.23	.22 **	.44	.19	85.89 ***
	거부	-.22	-.19 **	.48	.23	52.16 ***
	주관성적	.10	.10 *	.49	.24	37.00 ***
행복	정서적지원	.14	.15 *	.50	.25	29.15 ***
	부모존경	.24	.31 ***	.61	.37	24.28 ***
	정서적지원	.20	.29 ***	.65	.42	130.79 ***
행복	주관성적	.14	.20 ***	.68	.46	100.98 ***
	적대	-.11	-.14 **	.69	.47	79.01 ***
	성별	-.10	-.08 *	.69	.48	64.55 ***
행복	부모존경	.28	.34 ***	.56	.31	164.90 ***
	주관성적	.13	.17 ***	.60	.36	98.92 ***
	정서적지원	.10	.14 *	.61	.38	72.06 ***
행복	통제	.20	.22 ***	.63	.40	58.98 ***
	갈등	-.14	-.17 **	.64	.41	49.59 ***

사진 전시회



『Patagonia & Inca』 Photo Show

파타고니아(Patagonia)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잉카(Inca)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보셨지요. 이번 사진전시회의 주제는 '파타고니아'와 '잉카'입니다.

두 주제는 남아메리카(South America) 지역과 관련이 있다. 파타고니아는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남쪽 지역을 말한다. 파타고니아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지구의 최북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년설(perpetual snow)과 빙하(glacier)가 있는 이유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계에 놓여있는 안데스 산맥(Andes Mountains)이 있기 때문이다.

'잉카'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지방의 문명을 형성했던 인디오이다. 안데스산맥 고산쪽에 해당되는 잉카족은 페루(Peru)의 쿠스코(Cusco)를 수도로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통해 남으로는 칠레 남부, 북으로는 콜롬비아 서남부까지 뻗어나갔으며, 잉카제국에는 잉카문명이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의 촬영지는 23일과 21일 두 차례 잉카제국의 수도 쿠스코, 티티카카호수가 있는 페루, 우유니(Uyuni) 소금사막이 있는 볼리비아, 만년설과 빙하가 살아있는 파타고니아의 칠레와 아르헨티나 지역으로 직항편이 없어 미국이나 유럽을 경유하여 20여 시간 비행을 하여야 한다.

남미를 마지막 여행지로 꼽을 만큼 먼 거리에 위치한 곳을 두 번이나 다녀온 이유는 여행지를 선정할 때 문명이 시작된 곳을 보고 싶어서이며, 오지의 모습과 그곳에 사는 고산족들을 만나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Patagonia & Inca』 사진전을 통해 남미의 아름다운 자연,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장면,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를 가진 파타고니아의 풍광을 어설프게나마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진을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돕는 Photo Therapy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행사진가
윤영진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피츠로이봉>



<칠레 북부 아따까마 사막에서 만난 라마봉>



<파타고니아 칠레 토레스델파이네>